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39 1983년 1월 25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January 25, 1983

JAN 25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이민자 기업

인종차별 영향없다

소수민족대상 조사결과… 재정건실

이민자와 소수민족 출신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건실하며 또한 인종차별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 정부의 기업지원계획을 잘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온타리오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가 토론토의 이민자및 소수민족 출신이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주말 발표된 이 보고서는 또한 이들 이민자들의 기업은 대부분 2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총수익은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연구조사는 온타리오 인종관계국의 위탁을 받아 욕대학교 행동조사연구소가 82년도에 메트로·토론토 전역에 분포된 이민자들이 경영하는 61개 기업(흑인 11개, 중국 12개, 남아시아 14개, 일본 12개및 유럽계 백인 소수민족 12개)을 대상으로 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또하나의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민자들은 대개의 경우 정부의 기업지원 계획에 익숙치 못하며, 따라서 이들 대다수는 자기자신이 모아둔 저축금 아니면 가족과 그들의 콤뮤니티의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업을 착수했다는 점이다.

기업규모

일반적으로 남아시아(South Asia) 출신 이민자들의 기업이 가장 규모가 크며 다음은 유럽의 백인소수민족이다.

종업원수를 볼때 61개 조사대상기업의 약 절반이 6명이하를 고용하고 있으며, 불과 10개 기업만이 2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겨우 2개기업.

기업 이윤을 보면 대부분 연간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사이이나 조사대상기업의 4분의 1은 1백만달러를 넘고있으며 나머지 4분의 1은 75,000달러 이하의 수익을 보고한다.

기업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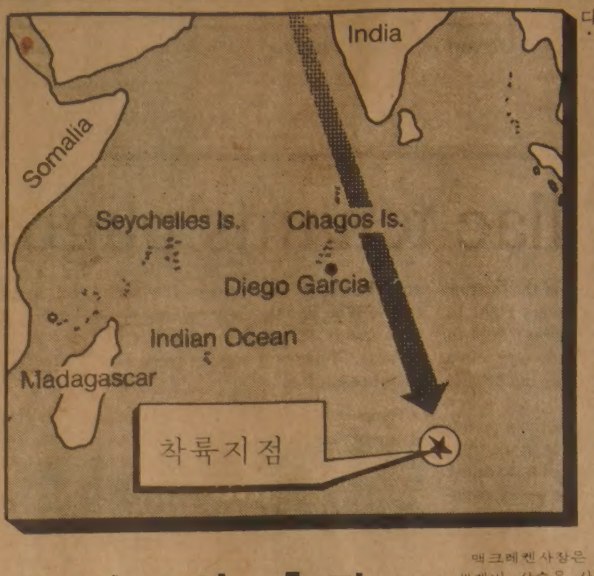
조사대상 기업주의 90%인 55명이 남자였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적어도 여자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기업주의 대부분은 40대 혹은 50대였으며 이중 3명이 아직 20대였다.

민족별로는 중국계가 평균 38.8세로 가장 젊었으며 일본계가 평균 54.7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다.

출생지별로는 대부분이 캐나다 밖에서 출생했으며 중국계와 남아시아계 기업주는 모두 캐나다 밖에서 태어났으며 이에 비해 일본계의 3분의 2는 캐나다에서 출생했다.

캐나다 밖에서 출생한 이민자의 경우, 대부분 67년과 75년 사이에 이민했으며 또한 이들의 대다수는 현재 캐나다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다.



◆23일 소련인공위성이 착륙한 지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각국은 그동안 이 방사성위성이 자기나라 상공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었다.

소련위성 인도양 추락

전 세계각국 비상령 해제

(워싱턴)세계각국이 저마다 자기나라 상공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던 소련의 고장난 방사성 인공위성이 23일 인도양으로 떨어짐으로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캐나다 북미항공방위대는 3,600킬로그램의 인공위성 주기체가 토론토시각으로 23일 하오 5시20분 대기권으로 떨어졌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확인이 있은지 40분 뒤 미국은 전세계에 폈던 비상대기령을 취소하고 미 전역의 비상대기반을 해체시켰다.

캐나다에서는 이날 50명의 방사선전문가로 구성된 긴급구조반이 만일 인공위성이 캐나다내의 어느 지역으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 오타와에 대기하고 있었다.

전세계를 긴장케 했던 소련 코스모스 1402 방사성 인공위성의 추락은

1978년 1월24일 캐나다 북부에서 이와 비슷한 소련위성이 추락한지 5년만의 일이다.

◆헐리웃의 여배우 캐롤·버넷(왼쪽)과 리즈·테일러가 23일밤 페이·TV를 위한 영화 〈Intimate Strangers〉를 촬영하기 위해 토론토에 도착했다. 이 영화에서 코미디 배우인 캐롤은 술중독자로, 리즈는 색정광으로 분한다. 최근 수년간 많은 미국의 영화제작진들이 촬영비가 적게 드는등 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토론토로 와서 촬영하는 회수가 많아지고 있다.

인플레율 계속 하락전망

작년 평균10.8%

(오타와)캐나다의 인플레율이 83년에 계속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캐나다의 저명한 경제학자 2명이 분석했다.

22일 캐나다통계국은 지난해 12월의 연 인플레율은 지난 2년내에 최하수준인 9.3%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82년도의 평균 인플레율은 10.8%로 81년의 12.5%보다 상당히 하락했다. 지난해 연말의 캐나다의 연평균 식품가격은 7.2% 상승했으나 이는 81년말의 11.5%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평균 인플레율은 3.9%로 10년내 최하위였다고 미국정부가 22일 발표했다.

사설 경제전망분석기관인 칸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수석경제연구관인 롬·맥스웰박사는 지난해 4·4분기의 캐나다 물가가 겨우 6.7%밖에 오르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금년도에도 이 이상 오를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오타와에 본부를 둔 사설 경기전망회사인 인퍼메트리카(Informetrica Ltd.)사의 마이크·맥크레켄 사장도 금년도 인플레율은 8%를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맥크레켄사장은 "12월의 생계비 상승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으며 4·4분기는 오히려 하락했음을 감안할때 금년에 물가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플레율이 낮아진다고 급작히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로얄은행의 잭·버머렌 경제분석가도 인플레율이 원자재 가격과 노동비의 안정등의 요인 때문에 금년말까지 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경기회복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캐나다통계국의 인플레율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를 두고 있다.

TTC 규모 북미 2위

뉴욕이은 최대승객 수송기록

토론토의 TTC는 지난 1년동안 무려 4억110만명의 승객을 수송, 시카고를 처음으로 누르고 뉴욕다음으로 북미에서 제2의 최대 대중교통수단으로 등장했다.

24일 보도용 자료를 통해 TTC는 지난해 40여년만의 최악의 불경기에도 불구,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한 910만명을 더 수송했다고 발표했다.

뉴욕의 경우는 81년 7월부터 82년 6월말까지 약 15억명의 승객을 수송, 북미 최대를 자랑했다.

TTC총지배인 알프·사비지씨는 시카고가 토론토보다 수송망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TTC가 승객 수송면에서 시카고를 능가한 것은 큰 업적이며 자랑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교회법개정 여성사제는 계속금지

(로마-바티칸)지난 20년간 연구·검토해온 「가톨릭교회법」의 역사적 개정안이 25일 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해 바티칸에서 공표된다.

지난 1917년 이래 처음으로 전면개정된 이번 새 교회법규는 전세계 7억 가톨릭신자들에게 입신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침서를 마련한 것이다.

한때 열띤 여론의 대상이 됐던 여성사제(성직자) 등용문제는 기각, 여성사제제도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 찬 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TORONTO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귀국선물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드디어 판매개시!
감기는 만병의 원인! 건조한 아파트생활에 주의하세요!!
日本제 최신형원심식전자동 가습기

지방에 계신 분을 위해서 Mail order를 받습니다. 물건값+송금료를 수표로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가격 —— US$79
카나다 $105 (+송금료)
(株) 日本家電
NIPPON KADEN LTD, BO.
MODEL NO. V.—57D
물용량 : 5ℓ
연속가습시간 : 14시간

가습기 원심분무식
Humidifier

* 예방보다 더좋은 약은 없읍니다!
습도가 부족한 겨울철의 건조한 실내는 누구나 쉽게 편도선(목젖)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아이들은 늘 감기가 계속되며 피부도 건성이됩니다. 필수적인 습도유지로 각종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 최신형 전자동가습기의 특징
1. 소음이 전혀없으며 실내전체를 쾌적하게합니다.
2. 고장이 전혀없읍니다. (2년간보증)
3. 켜고 끄는 번거로움이 없이 최저 습도 40%이하에서는 즉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판매처
○아세아한약방 ○고려식품 ○삼복식품 ○서울식품(동부·서부·해밀톤) ○제일식품 ○한국식품(본점·동부·서부·미시사가) ○한밭식품 ○한인식품 ○미도파백화점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신춘문예 시상식 거행

김부미씨 수상소감, "채찍 삼겠다"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제6회 신춘문예 시상식겸 1월 월례회가 22일밤 9시 이석현 문협고문 자택에서 문협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금년도 신춘문예의 유일한 수상자로 뉴브룬스위크주의 프레데리톤에서 온 김부미씨는 수상소감에서 "이번 수상을 격려의 채찍으로 생각,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상패와 상품및 토론토·한국일보가 기증하는 기념품을 증정받았다.

1941년생으로 올해 42세인 김씨는 서울 한성대학, 연대교육대학원을 중퇴한 전직교사이며 두 자녀의 어머니로 6개월전 미캘리포니아로부터 프레데리톤으로 이주했다.

김씨는 수필 "과일"로 가작 입상했었다.

문협은 회장 박순배씨 자택에서 모이는 오는 2월25일의 차기 월례회에서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6회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김부미(왼)씨. 시상자는 문협회장 박순배씨이다. (23일밤 이석현 문협고문 자택에서.)

82년도 주택건설 저조

125,860채로 61년도이후 최저

(오타와)지난해의 주택착공건수는 125,860채로 61년도에 125,577채를 기록한 이후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캐나다·모기지및 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s.)가 24일 발표했다. 81년의 착공건수는 177,973채였다.

주택착공건수는 주택건설산업의 전전여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자료이며 이는 또는 전반적인 경제상태를 파악하는 주요 기준표(바로미터)가 된다.

지난해 주택착공건수가 이같이 저조한 이유중의 하나는 높은 금리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년의 착공건수는 지난해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단독주택 착공건수도 81년도의 89,071채에서 54,457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주의 지난해 총주택착공건수도 81년도의 50,161건보다 크게 떨어진 38,508채에 불과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東京의 사나이

<155>

흔적 ⑥

X는 중국인·왕왕치로 변장… 서울로

그로부터 한 시간후 일본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일반 국민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조용한 비상이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그 어떤 비상보다도 많은 인원이 동원된 삼엄한 비상이었다。

범인이 국외로 빠져나갈 것에 대비해 모든 공항과 항만에는 물샐 틈없는 경비가 펴졌다。

그들은 출국자중에서 사사끼·고로란 이름을 찾았다。그러나 그런 이름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들이 눈에 불을 켠채 일일이 사진을 대조하면서 사사끼·고로를 찾고있을때 범인은 중국인 왕왕치로 변신해 출국사열대앞을 유유히 빠져나갔다。그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수사요원들의 일부는 보다 세밀한 부분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들은 코리무라의 방이 살해된 직후의 시간을 지점으로해서 모든 출국자들을 국적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섭새없이 떠나는 모든 항공기의 탑승자들을 국적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분류가 끝나는대로 그것들은 일본에주재하고 있는 각국 공관으로 보내졌다。

물론 사전에 외무성을 통해 협조를 부탁한다는 정중한 인사말이 있긴 했지만 각국 공관장들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는 자기나라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노골적으로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나라 사람이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면서도 외교경로를 통한 부탁이니 만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수없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관원들의 조사는 완전한 것이 될수 없었다。그들에게는 어떤 인물이 가공인물인지를 판별할 능력이 없었다。그래서 그들은 그 명단을 본국의 수사기관에 보냈다。

그렇게 해서 각국의 수사기관으로 계속 명단이 보내졌다。거기에 대한 통보가 언제 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이쪽에서 아무리 재촉한다해도 저쪽에서 늑장을 부리면 하는수 없는 일이었다。

나라마다 수사기관의 질이 달라서 어떤 곳은 명단을 입수하는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오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아예 소식도 없는 곳이 있었다。

그중 자유중국 수사기관은 질적으로 아주 우수해서 통보를 받자마자 민첩하게 움직여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내온 보고에 왕왕치라는 이름이 있었다。물론 그 이름은 이쪽에서 통보한 것이었는데 본국에서 조사해본 결과 그런 인물은 없다는 보고였다。어느것 하나 맞는 것이 없는 완전 가공인물이라는 것이었다。

이쪽에서 가공인물이 더 있을까 하여 기다려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보고는 들어오지않았다。인터폴과 도오꾜경시청은 결국 다음과같은결론에 도달했다。

『X는 왕왕치라는 중국인으로변장하여 1월1일 오후 5시15분발 JAL 보잉기로 출국했다。목적지는 서울。」

朴 男 그림

이번 주말 "행사풍년"

각 단체 정기총회, 신년파티등

다가오는 주말 29일은 토론토 한인사회에서 "행사풍년"을 맞는다

◆토론토 한인회(회장 장순채) 정기총회가 이날 하오3시 한인회관(20 Mobile Dr.)에서 열리며, 한국노년회(회장 조영호)도 같은 곳에서 12시30분 정기총회를 연다.

◆영남향우회 창립총회가 하오6시 케네디·밴쿠엣·홀(991 Kennedy Rd.)에서 열린다.

◆서울대동창회 신년파티는 이날 하오6시30분 Triumph Sheraton Hotel(Hwy 401×Keele St.)에서 열린다.

◆벤처프랜차이즈협회(회장 김병진)는 이날 하오6시30분 프린스호텔 크라운룸(900 York Mills Rd.)에서 4인조 악단 출연, 푸짐한 상품들을 곁들여 대대적 신년파티를 연다.

벤처협회는 이번 파티에서 지난 1년간의 업적등 경과보고및 앞으로의 사업계획 발표도 곁들인다.

◆한인상공인협회(회장 조병역)도 이날 하오6시 로얄욕호텔 Tudor Room에서 온타리오상공인협회장 Feibey씨등 각계인사 초청 리셉션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상협마크(Logo) 현상 당선자 송순태씨, 가작 김문웅·이종하씨, 장려상 최재철씨에 대한 시상및 대외사업 브리핑도 있다.

◆2천6백명의 신자를 거느린 토론토한인천주교회(주임 최규식 신부)는 새해 행사계획, 예산편성등 주요 안건을 다루는 사목위원회(총회장 이석현)를 이날 하오1시 한맘회관(439 Dundas St. E. Tor.)에서 연다. 사목위원수는 약 40명이다.

◆한편 토론토·베타와이즈맨클럽(회장 홍승규)는 이날 하오6시 홍승규 회장댁(2469 Harmond Rd. Missi.)에서 대보름 윷놀이를 한다.

이 자리에는 회원내외 30여명과 초청인사로 Y관계 백인 수명이 참가한다.

30일 슈퍼·보울 결승

마이아미·돌핀, 워싱톤·레드스킨과 격돌

AFC우승팀인 마이애미 돌핀과 NFC우승팀인 워싱턴·레드스킨이 이번 30일에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서 열리는 슈퍼·보울 17에서 맞붙게 되었다.

23일 AFC오렌지볼 최종일 경기에서 마이애미·돌핀과 뉴욕·제트는 비가 내리는 진흙탕 가운데 혈전, 돌핀은 제트를 14—0으로 제압했다.

AFC우승으로 슈퍼·보울에 나가게 된 돌핀은 10년전인 슈퍼·보울 7에서도 레드스킨과 격돌, 14—7로 레드스킨을 누르고 우승한바 있다. 당시 돌핀은 시즌전게임에 한번도 지지 않았다.

돌핀은 또한 9년전인 슈퍼·볼 8에서도 미네소타·바이킹을 제압하고 우승한 경력이 있는 막강한 팀이다.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은 AFC돌핀이 NFC레드스킨을 제압하고 슈퍼·보울 17에서 또다시 우승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유럽의 중거리미사일 소련, 극동 이동배치

(함브르크)지난주 서독의 유력신문 〈디·벨트〉 보도에 따르면 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최근 유럽측을 겨냥, 배치되어 있는 소련내 중거리미사일의 일부를 "일본의 새로운 거점에 대항하기 위해" 극동지역으로 이동시킬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그것은 동서기장이 얼마전 모스크바를 방문한 서독야당 사회민주당(SPD)의 차기수상후보 포겔씨와의 회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련은 81년 가을부터 미국과 유럽의 중거리핵전력(INF) 삭감교섭을 추진중에 있는데, 만약 삭감합의가 성립될 경우, 이미 배치된 중거리미사일 처리문제를 안드로포프는 포겔씨와의 회담에서 "해체한다"는 생각을 비쳤다고 알려졌었다.

포겔씨가 중거리미사일의 삭감은 「폐기」인가? 아니면 「이전」을 뜻하는가하고 묻은데 대해 안드로포프는 "핵무기의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철거하여 일본의 새 거점에 대항하기 위해 극동으로 이전한다"고 답변했다.

2월8일 몰슨테니스 개막

세계8강 출전…보그 참가

다음달 은퇴할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비욘·보그 선수는 오는 2월8일 토론토의 메이플·립스·가든(Maple Leaps Garden) 경기장에서 개막되는 25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세계 8강이 겨루는 몰슨스·테니스선수권대회(Molson's Tennis Challenge)에 출전할 것이라고 대회조직위원회가 24일 밝혔다.

보그선수는 2월6일 미국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에서 열리는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몰슨대회 대변인 크리스틴·양코우씨는 이날 보그선수의 사업 매니저 밥·케인씨의 말을 인용, 보그선수는 은퇴결정에도 불구, 토론토대회는 분명히 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코우대변인이 이같이 발표한 이유는 보그선수가 토론토대회 이전에 은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 때문에 토론토대회의 인기가 하락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로 장립식

키치너장로교회

키치너·워터루한인장로교회(담임 정동석 목사)는 오는 30일(일) 하오2시 키치너의 동교회당(388 오타와·스트릿·사우스)에서 이청남, 임신철, 장용인 3집사의 장로장립식을 거행한다. 연락처: (519)579—0954, (416)743—0816.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몰슨 테니스대회에 출전할 비욘·보그 선수.

(1면에서 계속)

인종차별 영향없다

사업경험

응답자의 대다수가 현재의 기업이 처음이며 사업경험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얻었다고 답변했다.

61명중 흑인 3명, 중국계 3명, 남아시아계 4명만이 캐나다 밖에서 기업경험을 얻었다고 응답했다.

사업시작 이유

이들이 밝힌 사업시작의 주요 이유는 재정적인 성공욕구, 보스가 되고자하는 욕망, 재정적 독립, 전번 직장에서의 승진기회 희박, 캐나다에서 기업 아이디어의 개발욕구등이다.

일본계와 남아시아계 응답자의 약 70%는 전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불확실하다고 느낀 것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동기라고 밝혔다.

사업착수금

사업착수금을 어디에서 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중 4분의 3은 개인저축금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저축금 다음으로는 은행및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융자금, 가족및 친구로부터 차용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객

이들 이민자 경영 기업의 상당수는 같은 민족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경영 11개 기업중 7개기업은 같은 흑인·코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중국계 기업도 마찬가지로 조사대상기업중 5개 기업이 차이나·타운내에 위치, 중국계를 고객으로 삼고있다.

그러나 일본계 기업만은 이와는 달라 1개기업만이 일본인만을 상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에 일본인 기업 밀집지역이 없다.

기업소유권

기업의 소유권에 대해 응답자의 73%는 자기자신이 기업주라고 대답했으며 19%는 동업자, 8%는 주주라고 각각 응답했다.

또한 이들중 59%는 사장 또는 회장으로 33%는 매니저로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상 문제점

일반적으로 이웃 기업및 코뮤니티와의 관계는 융화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은행융자에 대해 대상자중 10명만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융자금신청을 한번도 해본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융자금신청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1명중 94%인 48명은 필요한 융자금을 받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답변했다.

주정부및 시정부 규정과 관련, 대상자중 대다수는 면허, 화재, 안전 또는 보건기준, 경찰조사 또는 세무감사등 제반규정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협회가입

응답자의 57%인 34명이 기업및 전문협회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입 이유중 35%는 정부지원, 법률문제 또는 사업에 관련된 기타 정보를 얻기 위해서, 32%는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위해, 21%는 보다 많은 고객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토론토 칼튼·시네마즈에서 상영

세계 10대명화중 7작품

전 세계의 영화 평론가 122명이 매 10년마다 그동안의 최우수 영화를 선정 발표하는 인터내셔널·크리틱스·폴에든 10대 영화중 7위까지가 토론토시내 칼튼·시네마즈(Carlton Cinemas)에서 상영된다.

21일부터 일주일씩 상영될 이들 영화와 감독명은 다음과 같다.(이중 8, 9, 10위는 상영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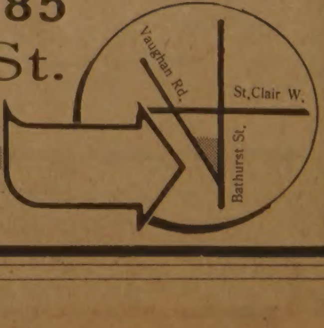
◎칼튼·시네마즈 영화관은 20 Carlton St.와 칼리지 서브웨이에 있고 저녁7시, 9시반 상영(전화번호는 296—3456)

1. Citizen Kane(41년 오손·웰즈 감독)
2. Pules of the Game(39년 장·르노아르 감독)
3. L'Avventura(59년 미켈란젤로·안토니오니 감독)
4. 8½(63년 페데리코·펠리니 감독)
5. The Magnificent Ambersons(42년 오손·웰스 감독)
6. The Searchers(56년 존·포드 감독)
7. Jules and Jim(62년 프랑소아·트뤼포 감독)
8. Singin in the Rain(52년 스탠리·도넨 감독)
9. The General(27년 버스터·키튼 감독)
10. Seven Samurai(54년 아키라·구로자와 감독)

MODERN FURNITURE
ecosys
확장이전

□이전일시 : '83년2월1일(화)
□리 셉 션 : '83년2월13일(일)
〈구정〉오후5시~9시

대표 김 만 구 (B) 657—1785
1440 Bathurst St.
21VAUGHAN RD. (우편주소)



하키계의 별…에드몬톤·오일러즈의 득점기계

NHL 올시즌 최상의 그레츠키 선수

찬사의 속삭임은 캐나다 초원에 내리는 첫눈처럼 고요히 시작되었다. 끝이어 그 소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동부에서 북부로 울려 퍼졌다. 이제 관중들은 우뢰같이 그를 향해 환호하기 시작했다.

『웨인·그레츠키는 최상의 선수이다』

이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말. 그들과 시비를 논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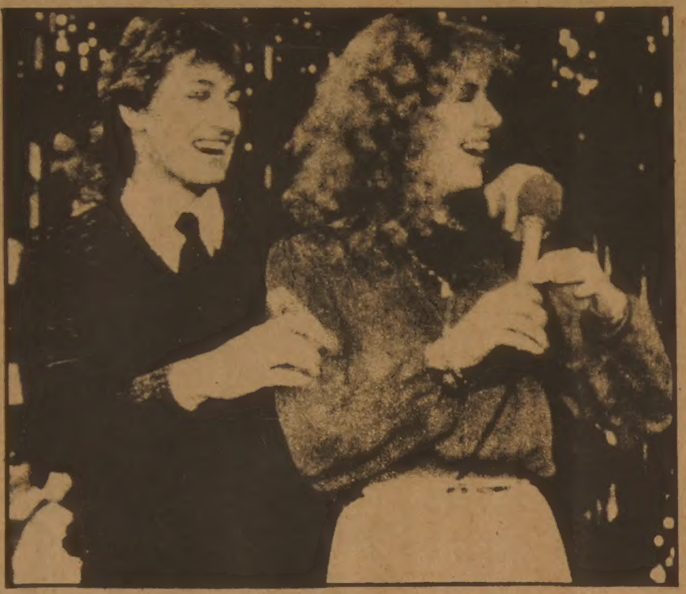
에드몬튼오일러즈의 불가사의한 그레츠키는 다음달 22살이 된다. 이제 전미하키리그(NHL) 시즌이 네번째인데 그는 하키기록집을 가지고 다니며 다음에 도전할 기록을 마음속에 품고 다닌다.

『난 아직 그처럼 재빠르게 경기장을 누비며 게임을 장악해나가는 선수를 본적이 없다』 NHL(전미하키리그) 사상 선두득점자중 하나였던 LA킹즈의 마르셀·디온느는 찬사를 금하지 못한다. 『난 그레츠키를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읍니다. 차라리 하키의 역사속에서 비교할 선수를 찾아야 할겁니다.』

NHL이 4개의 WHA(세계하키연맹)팀을 흡수했던 79년 오일러즈팀과 함께 리그에 참가한후 그레츠키는 신화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19살이던 첫해 MVP로서 하트메모리얼트로피를 수상, 최연소수상자가 됐다. 그는 당시 디온느와 함께 득점왕이 됐는데 디온느는 『웨인·그레츠키외에 NHL득점챔피언이 될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하찮은 질문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말한적이 있다. 당시 그는 하키기록집에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 80·81년에 1백64점과 어시스트 1백9번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는 92골을 올리고 1백20회의 어시스트와 2백12점으로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그레츠키가 이번 시즌동안 새로운 도전을 받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다. 그가 WHA에 1년간 참가하기는 했지만 그가 득점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던 NHL의 3번째시즌은 단지 24게임뿐으로 게이·라플리르의 NHL 참가게임보다 4게임이나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 그레츠키는 에드몬튼팀의 30경기서 매번 득점, 자신의 지난 시즌 기록을 앞질러 나갔다.

이제 비평가들은 그가 너무 독주한다고 비난한다. 그는 도무지 방어하는데 접이 없고 게임의 불사신으로 저지당하기에는 너무 젊으며 최우수선수 그레츠키라는 찬사의 연발에도 멈칫서려하지 않는다. 사실 그레츠키는 보비·오르를 제외하고는 어느 선배보다도 게임방식에서 충격적인 점이 많다. 오르는 오늘날 전형적인 수비스타일이며 공수전환에 능수능란하다. 오르는 어떠한 상대선수를 만나도 회전이 가능하며



◆애인 비키양의 노래부르는것을 붙들고 있는 NHL 넘버원 웨인·그레츠키. 비키양은 그레츠키 보이프랜드는 좋으나 노래만은 글쎄(?)하고 의문을 표시한다.

느닷없이 뛰어나와…번개같은 공격

"게임의 불사신" 신화 창조

절묘하고 깨끗한 슛을 쏜다. 그가 완전히 성숙된 플레이를 보이기 전 무릎부상으로 78·79년시즌에 은퇴할 때까지 60·70년대에 걸쳐 가장 멋진 장면은 오르가 자기지역에서 퍽을 차지한후 스피드를 내고 골인하기전 상대편 6명선수를 당황케하는 놀라움이었다.

그러나 오르가 밀물처럼 공격하는데 비해 그레츠키는 더 날카롭다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감추는 방법, 즉 느닷없이 어디선가 튀어나올줄 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즈와 뉴욕 레인저스의 전 코치였던 프레드·쉐로는 이어서 『오르는 막아낼수 있겠지만 그레츠키는 언제 어디서 쳐낼지 가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키는 이제 공격적인 게임이다. 득점하는 선수를 필요로 한다. 내가 해낸것은 팀들이 생각하고 탐색하고 경기하는 방식에 도움을 준 정도일 것이다』 아직 아무도 그레츠키만큼 득점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재 27게임 연속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웨인은 아직 최상의 시절에 다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오일러즈의 글렌·새더 코치는 말한다.

발맛사지 療法

「발」을 잘모셔라

신체 전체신경과 연결된 「중요기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발맛사지를 잘하라고 하면 얼마나 믿을까? 신체부위 중에서 가장 곤역을 치르고 학대받는 부분이 발이다. 하루종일 걸어다니고 발에도 맞지 않는 구두를 신는 등. 그럼에도 우리는 발때문에 죽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사실은 발이 신체 전체신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 한마디로 이곳에 지도가 나있는 셈. 예를 들어, 엄지발가락은 머리 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복숭아뼈 아래부분은 자궁이나 난소부위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신체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그와 연결된 발의 부위를 충분히 맛사지해 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발이 편안하면 몸전체가 쾌적하게 된다.

발맛사지 요법은 간단해서 집에서 쉽게 할수가 있다. 필요하면 집안 식구의 도움을 청해도 좋다. 우선 발의 긴장을 푼다. 맛사지 효과를 위해서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한다. 한쪽 발을 양손으로 꽉잡고 꽉꽉 비트는 식으로 해서 발을 완전히 긴장을 풀게 한다. 특별히 아픈 부위는 엄지 손가락으로 꽉꽉 누르면서 문지른다. 그러나 이때 엄지손가락을 돌리지 말것. 또한 힘들다고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손가락관절을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몇가지 발맛사지 요법을 소개해본다.

▲생리통

자궁이나 난소부위는 양쪽발 복숭아뼈 아래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난소는 복숭아뼈 바깥쪽, 자궁은 안쪽에 해당한다. 생리통이 오면 발뒤꿈치밑은 손바닥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을 직결부위 안쪽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은 바깥에 놓고 몇분간 맛사지를 계속한다. 다른 발도 꼭같이 해서 통증이 가실 때까지 계속한다.

▲긴장과 불면증

모든 병은 긴장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쉬도록 한다. 발 전체를 맛사지한다. 발바닥의 움푹패인 부분을 맛사지하고 몇분간 그 부위를 꼭 잡고 쉬도록 한다.

▲두통

머리를 콘트롤하는 것은 엄지발가락이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맛사지하도록 한다. 엄지 발가락 바깥쪽의 윗부분을 맛사지하면서 점차로 아래로 내리민다. 이렇게 세번 반복하여 발가락 바닥까지 넓혀가며 맛사지를 계속한다.

위와같은 발맛사지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피부에 생긴 작질층.

흔히 못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발의 긴장을 푸는데 장애가 되므로 벗겨내야 한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도 되지만 집에서 할수도 있다. 발에 못이 생겼으면 발을 물에 담그고 일단 경석과 같은 돌로 긁어낸다. 그리고 로숀을 발라 맛사지를 끝낸다. 항상 발이 편안하면 몸전체가 편안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즐겁고
추억의
봄 휴가는 세방에서

□ 토론토-벵쿠버(왕복) $199
□ 토론토-L.A.(왕복) $199

대표 유승민
서울 세방여행사
미국 나이아가라 대 관광학과
구엘프대 경영학과
토론토한국일보 편집국부장

Ed. Zander
메니저 CTC, AVON TRAVEL
PANAM 항공사
등 26년 경력

관광여행
업무안내

□ 항공권판매 : 모국방문·캐나다·미국등 모든항공권 취급
□ 여행수속대행 : 모든 이민업무와 미사서류 번역및 작성
□ 유학생상담업무 : 캐나다는 물론 미국의 각종대학 입학허가서 취득및 유학비자수속 대행
□ 관광업무 : 금번 한국일보사의 스키강습회를 비롯, 각종 관광단을 모집 예정이며 한국방문객들을 위해 나이아가라등 온타리오의 각종 관광명소를 성의로 안내.
□ 호텔·렌트카 예약

세방관광여행사
SEBANG TRAVEL SERVICE LTD.

BLOOR SPADINA Jewish Community Centre 720 Spadina

720 Spadina Ave. Suite104 TORONTO, ONT. (416)928-3335 (Res. 532-9581)

울赤十字회비 전달

全斗煥대통령은 20일하오 청와대에서 劉彰順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금년도 적십자회비로 金일봉을 전달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金正禮보사부장관이 배석했다.

"對話·和合다져나가야"

全대통령, 民正지구당改編大會에 致辭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20일『新時代 정치만큼후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정치 책임정치 청렴정치를 확립하여 선진적인 정치를 이룩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慶南蔚山과 全南海南·珍島지구를 시작으로 열린 民正黨지구당 개편대회에 보낸 치사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이러한 모든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정과화합을 지켜나가는 물론 그토대를 더욱 깊고 넓게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民正黨은 그동안 우리의정치사에 새로운바람을 일으키는 여러가지의 발자취를 기록, 정치가 국민을 이용하고 군림하는것이 아니라 國利民福을 증진시키는 참다운 봉사활동임을 실증했으며 非理와 혼란의 대명사였던 정치의內實을 정화과 안정으로 채워놓을수있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民正黨이 주도해온 새정치는 歪曲의 녀울에서 민주와 정의의 진정한 표상으로 그본질을 알차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전제한후 『우리黨의 편생동지들이 아무런대가를 바람이 없이 정성을 바쳐 黨의 발전에 헌신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민족·민주·정의·복지·통일의 5大 이념이 반드시 구현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美陸參총장 接見

全斗煥대통령은 20일 하오 청와대에서 에드워드·마이어 美육군참모총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海外協力委 신설

經協 효율적추진위해 副總理직속 機關으로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업무의 효율적인추진을위해 부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海外協力委員會를 설치, 운용키로했다.

20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海外協力委員會設置令』은 부총리소속하에 해외협력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차관이되고, 20인이내의 관계부처차관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企劃團(사무국역할)과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있다.

기획단은 차관보급단장과 2명의 협력관(국장급), 5명의 분야별담당관(과장급)을 포함 정원 28명으로 구성(2개국5개과)되며 실무위원회는 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국장급을 위원으로해서 구성하도록돼 있다.

해외협력위원회는 이달말 또는 2월초부터 업무를 정식 개시하고 사무실은 경제기획원내에 두게된다.

해외 협력위원회는 대외경제관계및 이에 관련된 해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되 현재 각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협력기능은 그대로두고 이를 총괄적으로 계획, 조정, 지원하는 기능을 맡게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①아프리카및 아세안 5개국등 개발도상국들끼리의 南南협력 확대 방안강구 ②수개부처가 관련되는 대외경제문제의 통합조정 ③대외교섭에 있어서 통일된 입장을 갖도록하는 사전조정 ④대외정책목표와 상충되는 제도·법령의 개선 ⑤교역및 국제교류지원 ⑥산업정보의 수집및 활용체제구축 ⑦대통령정상외교 후속조치 강구등이다.

「先進조국」實務班편성을

全대통령 指示 物價상승 더 낮출수있다

成長 7·5%… 83經濟운용계획確定 발표

全斗煥대통령은 20일 『83년 國政연설에서 국민에게약속한 「先進조국의 창조」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할 매우 중요한 해인만큼 이를위해 각부처가 분야별로 구체적인 靑寫眞을 마련, 시행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부총리가 중심이돼 실무작업반을 편성,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해야하며 어떤시책을 펴나가야 할것인가에 관해 연차적인 세부계획을 작성해 빠른시일안에 보고토록하라』고 金埈成부총리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金부총리로부터 금년도 經濟運用계획에관한 보고를 받은뒤 이같이 제시하고 『우선 경제적으로 선진국대열에 발돋움하려면 선진국들로 구성돼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되도록 노력하는것도 한방법이될 수있기때문에 OECD에 가입할정도로 우리가 경제적여건을 갖추어나가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무엇을 해야하며, 정책조정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것인가등을 함께연구해 보고하라』고 아울러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올해경제시책의 근본은 물가안정을 중심으로한 전반적인 경제의 안정에 두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물가는 주로 해외요인에의해 좌우되는데, 금년도 해외요인은 거의 零%에 가까운만큼 국내의 모든 물가상승요인만 잘억제하면 금년은 작년보다 물가상승률을 더욱 낮출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기술혁신을 통한 상품의 質향상과 국제경쟁력강화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상품의 質을 높이고 우리기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기위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에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보고자리에는 姜慶植재무 朴鍾文농수산 金東輝상공 徐相喆동자 金宗鎬건설 金正禮보사 李熺性교통 崔順達체신 李正五과기처장관과 鄭東喆노동부차관 河永基한국은행총재 金基桓한국개발원장 孫守益총리행정조정실장등이 배석했다.

輸出은 11%늘려

정부는 20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7·5%로 잡고 물가상승률(소비자)을 3~4%이내에서 억제하며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11·7%늘어난 2백35억달러, 수입은 2백55억달러로 각각 책정한 83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해설4면

도매물가 상승률은 2·0~2·5%에서 억제되고 실업률은 4·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아지도록돼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안정기반의 공고화 ▲수출의 지속적신장 ▲산업구조개선과 기술진흥 ▲중소기업·농어촌등 낙후부문의 개선 ▲시장경제운용의 발전 ▲사회개발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올해 경제시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화는 지난해 27·8%까지 늘어났던 총통화증가율을 18~20%까지 줄이고 화폐발행액증가율은 26·6%에서 14·0%로, 민간여신 순증액은 5조3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으로 줄이도록 했다. 활동은 현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재정은 물가안정에 노력하되 정에따른 세출의 최대한 절약과 다각적인 세수증대 노력으로 적자요인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질금리를 보장하면서 경제상황에 맞추어 금리가 대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되 소액·장기 예금을 우대하고 공금리와 시장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인상요인은 경영개선을 통해 자체흡수하고 관인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며 주택과 상가임대료를 안정시키기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公職퇴직 취업제한 3백73개企業 告示

정부는 20일 退職하는 公職者가 就業에 제한을 받는 營利私企業體 3백73개를 지정, 告示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를 業種別로 보면 ▲제조업이 南陽乳業등 2백21개로 가장많고 ▲건설업은 三益주택, 現代건설등 48개 ▲금융보험업은 東西증권등 43개 ▲도매업은 暎星물산등 32개 ▲운수·보관·통신업은 泛洋고속등 17개 ▲부동산·수산업은 금강개발산업등 3개 ▲광업·채석업은 東原炭座개발등 2개 ▲서비스업은 文化방송등 2개 ▲전기가스수도사업은 韓州, 숙박업은 호텔롯데등 각1개소였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983·[illegible]

사 고

「한국5大賞」오늘 施賞式

하오4시 本社12층강당… 많은참석 바랍니다

1983년도 「한국5大賞」시상식이 21일하오4시 한국일보社12층강당에서 열립니다. 한국일보社가 제정한 각종의 文化관계상을 종합시상하는 이 연례행사는 제23회 한국出版文化賞, 제15회 한국創作文學賞, 제13회 한국文學翻譯賞및 1983년도 한국新春文藝등으로 지난해까지 「4大賞」으로 불렸으나 올해부터는 主婦生活手記가 신설됐습니다. 해마다 新春의 문화계를 장식하는 이 문화의 식전에 수상자는 물론 수상자의 친지, 심사위원및 문화계인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한국5大賞 수상자

◇제15회한국創作文學賞=尹興吉(꿈꾸는 자의 羅城) ◇1983년도 한국新春文藝 ▲詩=任文赫(물의 비밀) ▲소설=金薔(길고긴노래) ▲時調=申俊榮(果園日記) ▲童話=姜敏淑(고무줄새총) ▲隨筆=柳康浩(茶綠記) ▲戱曲=李昌炫(가작·痲) ◇제13회 한국文學翻譯賞 ▲短篇小說=金慶子(塔) ▲詩=해당작없음 ▲長篇小說=李憲재(가작) ◇제23회 한국出版文化賞 ▲著作賞=孫禎睦(韓國開港期都市變化過程研究, 韓國開港期都市社會經濟史研究) 李鍾旭(新羅國家形成史研究) ▲製作賞=聖經臨句大全(아가페出版社) ▲醫療의 法理論(高大出版部) 法律百科(民友出版社) 現代世界知性全集(弘盛社) 韓國의 印刷(信興出版社) 悅話堂美術選書(悅話堂出版社) 韓國의 木家具(三省出版社) 그림나라100(和出版公社) 世界名作(三省堂) ◇제1회 主婦生活手記 ▲最優秀作=李榮出 ▲優秀作=姜貞順 ▲當選=…

한 국 일 보 社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日、有事時 4海峽봉쇄"

나까소네首相 蘇진출저지 海·空軍力증강

WP紙와會見…「不沈航母化」내용 큰波紋

【워싱턴=李文熙특파원】미국을 방문중인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일본수상이 소련태평양함대의 태평양진출을 저지하기위해 유사시 일본주변 4海峽의 봉쇄도 불사하겠으며, 일본을 「不沈航母化」하겠다는 19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紙와의 회견내용이 美日양국에 큰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나까소네수상이 밝힌 4해협봉쇄에는 소련 태평양함대의 東海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大韓해협도 봉쇄하겠다는 시사가 포함돼있어 우리에게도 주목거리다.

워싱턴·포스트紙는 나까소네수상과의 회견기사에서 일본은 ▲일본列島를 不沈航母처럼 강력히 방위할것이며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 백파이어의 일본영공침범을 저지할수있는 수준까지 일본의 공중방위력을 증강시키고 ▲유사시 소야(宗谷), 쓰가루(津輕)등 일본의 4개전략해협을 봉쇄 함으로써 소련 태평양함대가 東海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며 ▲해상교통로를 유지하기 위해 東京~괌, 大阪~臺灣간을 방위하는것이 일본의 분명한 목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나까소네수상이 직접적으로 일본의 군사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한것은 미국관리들에게도 예상밖의 일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나까소네수상은 이같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나온뒤 그를 수행했던 일본 특파원들에게 美日동맹관계의 내용이 안보적차원임을 시인, 81년5월의 레이건-스즈끼공동성명과는 다른 해석을 내렸으나 4개해협봉쇄 발언에서 해협수를 지적한바는 없다고 말했다.

제4해협이란 大韓海峽의미

【東京=宋孝彬특파원】나까소네 수상이 WP紙와의 회견에서 밝힌 일본의 4해협 봉쇄구상은 이제까지 일본방위상의 3해협 봉쇄구상에서 진일보한 개념으로 일본 외무성과 방위청 관계자들은 「제4의 해협」이 大韓해협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3해협은 소야, 쓰가루, 쓰시마(對馬)로 지칭돼온데 4해협으로 분류할 경우 쓰시마해협을 둘로 나누어 對馬島와 일본 본토사이의 東水道와 對馬島와 韓半島사이의 西水道를 구분한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報復 각오해야 蘇, 강경警告

【모스크바=AP】소련은 19일 일본이 만약 對蘇거냥 무기의 추가배치에 동의할 경우 1945년 원폭피해보다 더욱 가공할 보복공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日市場개방失敗"

레이건、나까소네會談뒤 聲明

【워싱턴=李文熙특파원】레이건대통령은 19일 訪美중인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과의 2차정상회담을 가진후 양국수뇌는 美 日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방위및 무역문제에 관한 『긴박한 도전』을 해결하기위한 『의의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만족을 표했으나 일본의 보다 넓은 對美시장개방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상오 나까소네수상과의 조찬을 겸한 실무회담을 마친후 고별성명을 통해 자신은 나까소네수상으로부터 양국간의 무역및 방위문제에 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약속에 고무되었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관계에 큰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방위및 관세장벽제거에 관한 일본의 정치적 민감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일본이 美國국민들에게 그들의 호의를 입증하는것은 일본의 무역장애제거에 『확실한 진전』을 보이는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문제에 관해서는 日本정부가 이제 평화와 안보의 부담을 보다 많이 분담할 용의를 갖고있다고 지적하고 나까소네 수상은 일본이 이같은 중요한 역할을 증대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미국의 우주계획 참여요구에 응하여 오는83년 美우주실험실 계획에 일본도 주인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신문판매대 볼투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社會漫評

今年 추위는…

地平線

『프랑스는 위대했고 위대하며 앞으로도 위대할 것이다』—샤를·드골. 드골의 말이다. 드골 전大統領은 그의 자서전인 「大戰회고록」의 서두에서부터 프랑스는 아름다움과 위대성으로 언제나 활활해진다고썼다. 그가 이제야 하수도나 같이 GNP가 올랐다고 위대하다 할수 있는가? 하고 日本의 급성장을 차갑게 논평했던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위대함」에 대한 정열과 희망이 없으면 GNP의 지수가 좀 올랐다고 위대해진 것은 아니라는점을 가리킨것이다. ▼얼핏 들으면 프랑스만이 위대하다는것으로 곡해도 되겠으나 드골이 프랑스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한 그의 의지만은 높이 살만하다. 군나르·뮈르달이 현대경제학 조류에 대해 비판을 가한 저작 「反主流論」속에서 과거30년동안의 美國경제와 사회변화를 혹독하게 논평한후 그래도 미국의 젊은이들이 「美國의 꿈」을 버리지 않고 실현시켜 가겠다고하는 한 미국이나 世界에다 틀림없이 더 큰 「이류적인 완벽」을 위해 기여할것임을 믿는다고 결론지었다. ▼위대해 지겠다고 하는 의지는 어떤 發展計劃이나, 與件보다도 우선 해서 간직되어야할 핵심이다. 아무리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발전계획이나 이론이 잘다듬어져 있다해도 그것으로 발전이 절로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발전과 전진과, 그리고 위대함에 대한 꿈과 의지 위에 비로소 그꽃은 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근래 「絕對貧困」을 타파한 귀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경제이론이 가져다준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意志가 앗겨다 준 결실이다. ▼요즘 흑심해진 世界的 不況은 경제이론도 효험이 없는듯 하다. 이 不況은 非經濟학자인 헨리·키신저까지 우려할만큼 「耐乏」도 治癒되지 않고 오히려 先進民主體制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지경에 이르고 있다. 耐乏에 대한 불신은 바로 商業社會전반에 대한 不信이된다. 막스·웨버는 資本主義발달의 정신적동기를 프로테스탄트의 淸廉과 儉約에서 찾았었다. 그러나 이런 정신적 자세가 오늘에는 곤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소외당하는것은 안타까운일이다. ▼全斗煥대통령은 새해국정연설에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主唱하였다. 『우리 국민의 위대성과 국민저력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전제하면서 「先進」으로의 長征을 요구한 것이다. 「先進」이란 經濟的·物質的수준만으로 가름되는것은 아니다. 우리의 정신·意識과 行動이 함께 선진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저변에 깔린 「偉大性」이 結實하는데서 이루어지는 先進, 우리의 精神的支柱가 더 살찌는 「先進」, 그런것을 우리 각자는 더 추구할줄 알아야 할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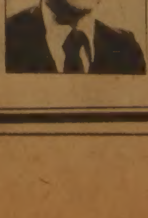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오사까 하우스
12 TEMPERANCE ST.
TEL: 368-2470 OPEN 7DAYS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
(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초밥, 국수류등)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Queen / Temperance St / King / Bay / Yonge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사업체
매매 알선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친절히 봉사합니다
(올게지 상담)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社說

對話의길 새해도 外面
—진부한 北韓측「連席회의」 제안底意

18일 國政연설에서 全斗煥대통령은 어언 38년째로 접어드는 分斷고통을 회고하며 南北韓이 「民族의 利益을 우선」시켜 平和統一을 추구하기 위해 「사상과 제도의 장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조건없는 對話」에 마주앉자고 호소했다. 한데 바로 그 수시간후 北韓측은 당돌하게 이른바「政黨·社會團體 聯合聲明文」을 발표, 정치적으로 지극히 배타적인 선전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평양의 소위 21개 政黨·社會團體 명의로 발표한 그 성명은 우리측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을 비방하고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회담」제의를 거듭 거부하면서 駐韓美軍을 두고는 統一對話를 할수없다는 독단을 전제삼아 南北의 政黨·社會團體및 海外교포단체의 대표 그리고 海內外 개별적 인사들이 참가하는 「連席會議」를 소집하여 오직 駐韓美軍을 철수시키는 문제만을 토의하자고 주장한 내용이다. 또 그 「連席會議」에 앞서 「豫備會談」을 가지되 이에는 우리측의 民正黨·民韓黨·국민당과 북한의 로동당·사회민주당·天道敎靑友黨대표 각 1명씩을 참가시키자고 했다.

요컨대 그들의 성명문은 이미 馬脚이 드러난지 오래된 「統一戰線」전략에 집착하면서, 소위 「당면 투쟁목표」에 다소라도 이용할수있는 세력이 있으면 일시 손을 잡아 이른바 「주요한 적」을 고립시켜 보겠다고 획책하는 꿈이다. 그러나 오늘날 赤化戰略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것은 그들의 기도가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도 좀처럼 속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경우 그들의 성명문은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을 뿐더러 연석회의의 의제를 오로지 駐韓美軍철수에 국한시키자고 했으니 사실상 南北對話 자체를 외면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편 全대통령은 올해 國政연설에서도 南北韓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만나는 자리에서는 ①긴장 완화와 전쟁재발 방지 ②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과 「북한이 주장하는 統一方案」을 포괄적으로 협의 ③국제무대에서의 民族力量 낭비 방지 ④平和統一촉진을 위한 국제적 與件조성을 모두 다룰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대조해 볼때 북한측의 성명문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도발적인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보겠다. 게다가 북한측이 南北간의 信賴회복과 동족상잔방지를 위한 平和정착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성의 표시도 없이 구태의연하게 「駐韓美軍철수」요구만을 강변한 점이 우리의 경각심을 자아내게한다. 그들에게 6·25南侵史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었으며 또 주변정세에 대한 현실인식이 몰각되어 있기때문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오늘의 북한은 世界史에 유례없는 가혹한 공포통치와 내핍생활에 더하여 시대착오적인 世襲後繼體制까지 골몰하고있어 中·蘇거류 동포들마저 완전히 외면해 버린 실정이다. 그러한 형편에서 이번 장황한 선전공세를 펴게된 底意에는 ①그들의 南北對話거부를 합리화해보려는 부질없는 시도 ②武力赤化統一망상의 국제적 은폐 ③韓國政界의 國論분열을 꾀해 보려는 헛된 포석 ④北韓주민들의 불평불만을 「注意外轉」방식에 의거 무마해 보려는 술책등이 깔렸을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독재층은 세계가 빈축하는 개인숭배 장기집권 과정에서 敎條的 경직성만 고질화된 만큼 그들의 어두운 계산은 하나도 이루어질까닭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으니 북한당국이 私利보다 公益을 앞세우고, 黨利보다 民族의 利益을 優先시켜 우선 무조건적 南北對話에 호응해야 마땅할것이다. 平和統一의 실마리를 찾고 南北간의 근본懸案을 해결하기 위해 쌍방의 최고책임자회담이 先行되어야 할것은 萬人앞에 自明한 이치이다.

異見해소에 進一步
—美·日頂上회담이 보인 暖流寒流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日首相은 취임 8주만인 지난 18일부터 3일간 미국을 공식방문했다. 이번 나까소네首相의 워싱턴방문은 慣例的 美國行과는 좀달리 우리의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맨스필드 駐日美대사의 지적대로 오늘의 美日관계가 戰後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속에서 나까소네 새首相이 미국을 방문했기때문이다. 戰後 최악의 美日관계란 말할것도 없이 일본의 對美무역黑字(82년도 약2백억달러)로 말미암은 양국간 무역마찰과 美國의 對日방위력증강요구를 둘러싼 종래의 不協和音이 바닥에 깔린 것이다.

이처럼 험난한 美日관계분위기에서 레이건—나까소네정상회담이 과연 어떤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訪美에 앞선 나까소네首相의 서울방문에서 다져진 韓日관계의 轉換이 韓·美·日3角협력 체제로 어떻게 擴延될 것인지가 우리의 視線을 모으게 했었다.

두번에 걸친 美日정상회담에서도 무역마찰을 둘러싼 異見은 크게 좁혀지지않았다는 보도다. 그러나 방위문제를 둘러싼 쌍방간의 協議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특히 그간 美日간에 있었던 日本의 자체방위력증강·방위비증액·西太平洋지역에 대한 방위기여, 對美군사기술제공, 對蘇위협에 관한 見解차이등이 상당히 좁혀진것 같다.

회담을 마친후 레이건美대통령이 美日同盟관계는 「死活的인 중요문제다」고 말했고, 나까소네日首相 역시 美日양국은 태평양을 둘러싼 「運命共同體」이며 두나라가 「同盟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한것은 防衛문제에 대한 진전을 알수있게한다.

訪美중 나까소네日首相은 워싱턴포스트紙와의 회견에서도 소련 백파이어 전략폭격기의 日本領空침범 방지와 일본열도를 「不沈航母」로 만들어 나갈 요새로 구축 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뿐아니라 소련함대의 太平洋진출을 저지하기위해 일본주변 4해협의 완전봉쇄 구상을 털어놓아 안팎으로 미묘한 문제점을 던지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일본은 有事時 해협 봉쇄의 대상으로서 소야(宗谷), 쓰가루(津輕), 쓰시마(對馬)의 3해협을 지칭해 왔었다. 한데 제4해협이 한국과 對馬島사이의 大韓해협을 두고 말했을 것이라는 일본 外務省및 방위청의 견해가 있는만큼 그 진부에따른 우리관심 또한 비상해진다.

韓半島 문제에 관해서는 레이건대통령이 나까소네首相의 訪韓을 높이 평가하고 『韓半島평화, 번영및 긴장완화를 위한 양국의 역할분담과 기여를강조』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韓·美·日3각협력에 의한 安保가 어느때보다 공고해진것으로 일응 평가될법 하다.

동시에 美蘇관계의 측면에서보면 韓半島를 둘러싼 새로운 局面전개가 따를지도 모를일이다. 공교롭게도 같은時點(19일)에 밝혀진 美국방성 84~88회계연도 국방지침은 「소련이 재래식군사력으로 페르시아灣의 産油地를 점령하려고 시도한다면 미국은 北韓, 베트남및 소련해안지역에 反擊을 加할 계획」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이미 소련과 北韓은 나까소네首相의 서울방문때부터 韓·美·日3각협력을 군사협력이라고 비난했다. 또 소련은 일본의 방위력증강노력과 관련, 신예 SS20핵탄두미사일의 極東이동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 모두 우리의 경계를 요하는 대목들이다.

생각하면 소련의 이같은 軍事的 위협과 진출기도는 오래전부터 계속된것이다. 따라서 비록 美日간의 구조적 무역마찰은 해소하지 못했으나 美日동맹관계의 재확인과 3角협력체제의 강화, 그리고 일본의 對蘇방위태세증강노력등에 양국의 見解가 접근한것은 이번 美日수뇌회담의 성과로 보아 무방하겠다.

아르헨티나 特攻隊 포클랜드 再侵가능
美CBS보도 "심상치않은 증거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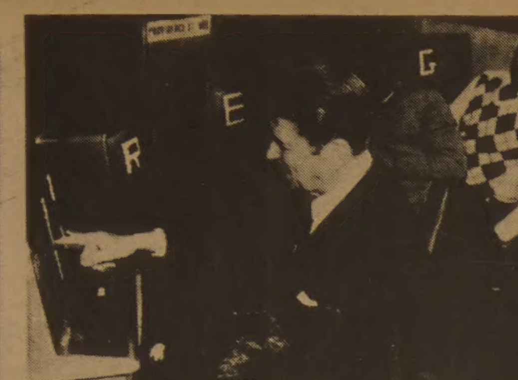
【뉴욕·부에노스아이레스 外電=綜合】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레이건행정부의 고위관리들에게 아르헨티나 특공대가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영국과 한차례 전쟁을 치른 포클랜드군도주둔 영국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고 미국의 CBS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정보소식통들을 인용, 아르헨티나가 특공대작전을 수행하기위해 심상치않은 준비작업을 벌이고있는 증거들이 포착됐다고 말하고 美정보분석가들은 아르헨티나 특공대가 포클랜드군도내 영국군 레이다기지, 통신시설 및 대공포대등을 공격목표로 삼고있는 것으로 믿고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美정보기관들은 아르헨티나가 영국군의 초계헬리콥터를 포클랜드군도주변 2백마일해상에 선포된 전관수역 밖으로 유인, 격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외교소식통들은 아르헨티나 공군이 3주일전에 미라지전폭기 2개중대를 북부 코르도바기지에서 포클랜드군도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남부지역의 공군기지로 이동배치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또 코르도바시에 본부를 둔 아르헨티나군 제4연대가 특공대훈련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高校 컴퓨터 見學하는 레이건 美대통령

찰즈·퍼시 상원의원을 위한 만찬회에서 연설하기위해 시카고市에 와있는 레이건 美대통령이 19일 이곳 프로비던스·세인트·멜즈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컴퓨터의 키보드에 손을대보고있다。 【시카고19日AP=聯合】

埃·蘇관계 곧 개선 蘇가제타誌 樂觀

【모스크바=聯合】 지난10년동안이나 긴장상태에있던 이집트와 소련간의 관계가 가까운장래에 개선될것 같다고 소련의 한주요정치 주간지가 19일 보도했다.

週刊 리테라투르나야·가제타지는 카이로발 보도에서 이집트의 정계인사들은 두나라의 관계정상화가 서로의국가이익을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한때 긴밀한 동맹관계를유지했던 이집트와 소련은 안와르·사다트前이집트대통령이 지난72년 수천명의 소련군인과 민간고문들을 추방함으로써 저조한 상태로 급강하했다.

早期경보 基地요구
이스라엘, 레바논撤軍조건

【예루살렘 AP·UPI=聯合】 이스라엘은 미국및 레바논과의 7차에 걸친 철군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철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부레바논내의 이스라엘군 조기경보기지 건설을 요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츠하크·샤미르 이스라엘외상은 이날 이스라엘방송과의 회견을통해 남부레바논에 이스라엘군의 조기경보기지가 건설돼야한다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확고하다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적대세력의 레바논진입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佛·西獨 頂上회담
어제 협력조약 20돌맞아

【파리AP=聯合】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佛·獨협력조약체결 20주년을 맞아 20일 西獨을 방문, 헬무트·콜西獨수상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디테르·슈롤체西獨정부대변인은 콜수상이 西獨을방문하는 미테랑대통령에게 안드레이·그로미코소련외상과의 최근 회담결과를 설명할것이라고 전했다.

슈롤체대변인은 이어 西獨은 『유러미사일』에 관한 美·蘇의 제네바회담과는 상관없이 프랑스의 핵무기를 현재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프랑스정책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佛·獨협력조약은 지난 1963년 1월22일 당시 프랑스의 드골대통령과 西獨의 콘라드·아데나워 수상에 의해 체결되었었다.

"반대세력에 寬大입장표명"
유럽紙들, 全대통령연설보도

【제네바=聯合】 일부 주요 유럽신문들은 19일 全斗煥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全대통령의 정치활동 규제완화발표는 반대세력들에대한 관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紙는 정치활동 규제조치를 완화하겠다는 全대통령의 연설은 『반대세력들에 대한 관대한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83년에는 지난해보다 더높은경제성장을 이룩, 선진국 들을 따라잡을수있는기회로 이용할것이라는 경제정책 내용도 보도했다.

페灣지역 新聞들도

【매내마=聯合】 페르시아灣지역국가들의 신문들도 19일 全斗煥대통령이 18일 국회에서행한 시정연설을통해 정치규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크게 보도했다.

아랍 에미리트연합(UAE)의 英字紙 할리즈·타임즈紙는 이날 서울발외신기사를 싣고 全대통령이 정치활동을 규제하고있는조치를 올해안에 해제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行政용어 1천2백38개 올부터 쉽게고친다
似而非→가짜 何人→누구 以下餘白→아래빈칸 一掃하라→없애라

정부는 20일 국민에게 불쾌감을주거나 강압적인 用語, 일본식 한자어, 국민이 이해하기어렵거나 필요이상의 外來語등 1천2백38개의 행정용어를 고쳐사용하도록 각급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정부는 순화된 용어의 사용을 정착시키기위해 올해부터 문서발송, 보고, 書式또는 법령을 제정할때 순화된용어의 사용여부를 점검토록하는 한편 기술전문분야에대한 용어 순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순화된 행정용어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이 순화된용어).

▲供託하다(맡기다) ▲棄兒(버려진아이) ▲來臨을바람(나오시기바랍니다) ▲路肩(길어깨) ▲러시아워(몰릴때) ▲僻地(외딴곳) ▲植木(나무심기) ▲守則(지킬일) ▲植木日(나무심는날) ▲銳意注視(잘살핌) ▲隸下기관(딸린기관) ▲育林의날(나무가꾸는날) ▲殘存하다(남아있다) ▲繰上배정(당겨 배정) ▲倉卒間(갑자기) ▲催告(독촉) ▲始末書(경위서) ▲橫領하다(가로채다) ▲袖手傍觀하다(못본체하다) ▲氣合을주다(힘주다) ▲使役시키다(일시키다) ▲要注意(주의하십시오) ▲信憑性(믿음성) ▲右回轉(오른돌이) ▲一掃하다(없애다) ▲塗色(색칠) ▲羈束하다(얽매다) ▲似而非(가짜) ▲上司(웃사람) ▲스마일(방긋·미소) ▲아이템(항목) ▲有閑時(있을때) ▲以下餘白(아래빈칸) ▲剪枝작업(가지치기) ▲正히(바로) ▲脫字(빠진글자) ▲稱하다(부르다) ▲弊社(우리회사) ▲何人(누구) ▲筆硯臺(기록대) ▲饗應(대접) ▲懸案問題(걸린문제)

記者의 눈
1·21과 푸에블로

우리는 50년 6월25일에 있었던 北韓의 남침을 『상기하자 6·25』로 표현하고있다. 미국사람들은 42년 12월7일에있었던 日本의 眞珠灣 기습공격을 『진주만을 기억하자』로 되살리고 있다.

15년전인 68년 1월21일 北의 124게릴라부대 특공대원 31명은 서울의 靑瓦臺 5백m 전방까지 침투, 朴正熙대통령을 바로 공격하려 했었다. 그이틀후에는 東海에서 미첩보함 푸에블로호를 北측이 고속정으로 공격한끝에 元山港으로 나포해간 사건이일어났었다.

이들두 도발사건은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표현하는것이 좋을까?

1월21일 일요일밤 9시45분~10시사이 당시 주한 美대사 윌리엄·포터는 貞洞대사관저 뜰에서 愛犬과 산책중이었다. 靑瓦臺쪽서 연속적인 총성이 들렸다. 그에게 보고된 내용은 『일단의 북괴무장군인이 청와대 습격을 기도했다. 총격전이 벌어져 1명의 경찰관이 죽고 게릴라 4명이 사살됐다』는 것이었다.

포터는 子正가까이 되어 朴대통령의 부름을받고 청와대로 갔다. 朴대통령은 차갑게 흥분해 있었다. 『대사! 북괴군 30명이 쳐들어와 나를 죽이려 했소』

朴대통령은 술을 돌리고 말을 이었다. 『北을 공격 해야겠소. 이틀이면 平壤에 닿을수 있다고 생각하오』

포터는 『하시려거든 혼자 하십시오』라고 능청을 떨었다.

美國은 越南戰이 한창인판에 한국땅에서 또다른전쟁을할수는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敗走한 무장공비잔당소탕전이 서울북쪽에서 한창인 1월23일 새벽 2시24분께, 워싱턴 白堊館의 故린든·존슨대통령은 狀況室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어제밤 10시52분~새벽12시30분사이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東海에서 북한潛艇추적선, 고속정등 4척에 의해 元山항으로 나포되어갔음. 끌려간 배에는 6명의장교, 75명의 병사, 2명의 민간인이 승함했고 4명부상, 1명은 중상임. 정보함은 북한이 주장하는 12마일 해안선 밖 15.4마일에 있었음』

존슨은 사태판단을 하기 어려웠다. 우선 北韓의 底意를 알아 소련을 통해 조정을요구하라고 駐蘇美대사 톰슨에게 지시했다. 톰슨의 즉각적인 대답은 『소련측은 협조거부를 표명,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함』이었다.

미국내 여론이 들끓고있었다. 그런 한편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한 金聖恩국방장관은 로버트·프리드만8군참모장을 불러 항의에나섰다. 『조그마한 피그·보트(군함의 美俗語)한척에는 天地가진동하고있으면서 우리 대통령관저앞에서의 총격전은 아무것도 아니란말이요』

1월31일 汝矣島광장에 모인 10만시민 궐기대회는 金日成을 화형시키면서 푸에블로사건에 대해서는 한 [illegible] 습격보다 푸에블로에 중점을 두는 미국정책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성명했다.

그러자 사이러스·밴스美대통령특사가 달려왔다. 朴대통령은 『한국단독으로 北을 공격하지는 않겠다』고 누그러졌다. 밴스는 1억달러의 추가 군원, M16공장건설의 보따리를 풀었다. 향토예비군의 설치, 「自主國防」, 「安保최우선」의 정책은 이때 싹이 튼것이다.

韓·美 두 대통령은 「越南과 韓半島 두곳에서 전쟁을 치를수없음」에 認識을 같이했다. 그러나 朴대통령은 미국이 위기가 있을때마다 도와주는 「莫逆한 盟邦」은 아니라는사실을 감지했다. 존슨 대통령은 北韓을 폭격하고 元山港을 봉쇄하고 지뢰를 부설하자는 미국내 강경론에 대해 『나는 논쟁에서 이기고 싶지않다. 그러나 장사에서 밑지기 싫다』고 응수했다. 국내 여론에는 지더라도 外交에서는 實利를 얻겠다는 것이었으며, 그 대상국은 한국이었다.

기자는 15년전의 1·21사태때 鍾路署출입기자였다. 紫霞門을 지날때 마다 동상이되어 서있는 崔圭植경무관을 쳐다보곤한다. 그의 죽음뒤에서 韓美간 異見과 實利가 숨바꼭질 했음을 그 역시 알지못하리라. 故人의 명복을 빈다. 【朴涌培기자】

政局往來

◆質좋고 값싼 물건 많이 생산해야

全斗煥대통령은 20일상오 청와대에서 金埈成부총리로부터 올해 경제운용계획에 관해 보고를받고 『모든 경제부처는 혼연일체가돼 이 운용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

全대통령은 또 『우리국민들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잘 모르고 너무 自虐과 자기卑下를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국민들의 근면성과 우수한 두뇌, 그리고 협조정신은 세계제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때문에 이底力을 국민모두가 믿고 서로 굳게 단결해나가면 「선진조국의 창조」는 반드시 이룩될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있다』고 강조.

全대통령은 이어 『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 위해서는 質이 좋고 값싼물건을 많이 생산해야하는데, 아직도 지난날의 안이한 자세에서 質나쁜 물건을 값비싸게 국민들에게 팔려는 기업들이 없지않다』면서 『이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국산품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것』이라고말했다.

◆11代敗北의식…새위원장칭찬

20일상오 열린 民正黨 전남海南珍島지구당 개편대회는 6백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진행됐으나 이지역이 11代총선에서 敗北지역이기 때문인지 은근히 熱氣속에 전국구로 위원장을 맡은 丁時采의원의 칭찬으로일관.

이날 대회에 격려차 동단한 인사는 모두 民正黨의 지난2년간의 업적과 지역사업실적을 내세워 설명하는한편 특히 지난해 이지역의 旱水害극복을위해 全斗煥대통령이 베푼특별한 배려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보내기도.

權翊鉉사무총장은 丁위원장이 지난해 이지역에 투입된 예산이 30억원이라고 설명한것과 관련, 『사무총장인 나의 지역구에도 10억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丁위원장이 끔찍하고 計數에 밝기때문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따올수 있었다』고 추켜세웠다.

한편 19일저녁 光州에서 全南도지부가 마련한 리셉션에 참석한 權총장은 『全대통령은 이미 지난80년 光州에서 있었던 응어리졌던일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말했다.

"質나쁘고 값비싼 국산품은 보호할 가치없어"

◆땀흘린사람과 觀望者 따로없어

民正黨 92개지구당중 20일상오 처음으로 개편대회 테이프를 끊은 경남蔚山지구당(위원장 高源駿의원) 대회에는 李載澿대표위원을 비롯한 16명의 소속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

이날대회에서 李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全斗煥대통령이 國政연설에서 밝힌 先進祖國의 창조를 위해서는 땀흘린 사람과 이를 관망하는사람이 따로 있을수없으며 너나없이 합심협력해야한다』고力說한후 『제5공화국은 민주주의 토착화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모두가 달려들어 새시대 주도정당인 民正黨이라는수레를밀고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들에게는 全대통령의 一代記인 「黃江에서 北岳까지」란 책과 「平生同志」등 黨인쇄물을 선물로 줘 異彩.

이에앞서 李대표는 기자들과만나 『요즘 政街에 熱風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이러한 熱風은 정치인의 정신적인 허구성에서 나오고 있는것』이라고 野黨지구당대회의 정치적주장을 반박하기도.

◆민주力量결집위해 黨競選포기

20일의 民韓黨 釜山北區(위원장 辛相佑의원)와 西區지구(徐錫宰의원) 개편대회는 黨權도전을 포기한 辛 전사무총장을 격려하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진행.

이날 北區 개편대회에서 柳致松총재는 『辛의원의 競選포기는 民韓黨을 민주세력의 求心點으로 만들기위한 희생적 결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한후 『이제부터 우리모두는 合心 단결해 在野 인사들과함께 평화적 정권교체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진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辛전총장은 『민주力量을 결집시켜야 할 시점에 자칫 당내 異見이 黨力을 소모시킬 우려가 있어 스스로를 抑制시킬수 밖에 없었다』고 「괴로운 선택」의 입장을 밝히면서 『柳총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결의와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자』고 당부.

한편 축사에서 吳洪錫 중앙상위의장은 『辛위원장의 정치旅路에 항상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위로했고 金銓圭정책위 의장, 金文錫 인권옹호위원장은 『辛위원장은 앉아도 서도 누어도 실력자』 『政界의 人物』이라고 추켜줬다. 【釜山=金永煥기자】

人事異動

大韓住宅公社 ▲再開發事業部長 鄭文成 ▲技術運營部長 林文鎬 ▲工事部長 崔慶一 ▲住宅研究所長 葛正茂 ▲開浦工事事務所長 朴在東 ▲果川〃 金基昌 (18日字)

한국방송공사 ▲사회교육국부국장 金善初 ▲보도본부 방송위원 金집화 ▲서울올림픽조직위파견 尹성현 ▲편성2국운행2부장직무대리 李興柱 ▲국방대학원 연수파견 李哲熙 ▲〃 宋興植 (19日字)

本社來訪

▲金鎭炎씨 (국민은행중앙청支店長) ▲李漢鎔씨 (〃광화문支店長) 新任人事次 ▲朴春昍씨 (株)柳韓洋行대표 ▲朴魯錫씨 同판촉광고담당상무 ▲鄭光來씨 同광고부장 인사차

海外토픽

손바닥크기컴퓨터 美애플社개발공개

미국 유수의 소형개인용컴퓨터제조회사인 애플컴퓨터회사는 최근 초보자라도 30분안에 조작이 가능한 손바닥크기의 신형컴퓨터를 만들어 20일 일반에게 공개했다.

리자컴퓨터로 불리는 이신형컴퓨터는 대당가격이 9천9백95달러(한화 약 7백50만원)로 일반사무실 근로자들이 컴퓨터「지시기호」를 익히지 않고서도 손쉽게 조작할수있다.

애플사가 3년동안 5천만달러의 거금을 투입하여 고안해낸 리자컴퓨터는 한개의 키보드와 영상스크린, 한개의 디스크 기억장치, 6개의 소프트웨어 응용장치, 사용자가 보고서를 작성·편집하고 동시에 財政전망및 그래픽 등등을 할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다. 【쿠퍼티노(캘리포니아州)=UPI聯合】

병원서「死者」처리 8旬노인 혼줄나

서독에서는 최근 심장병을 앓고있는 83세의 한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원들의 실수로 「죽은사람」으로 분류, 차디찬 시체안치실에 옮겨진후 기절초풍할일에 오히려 병세가 호전되는 희귀한 일이 발생. 【본=UPI】

◇2명의 모델이 파리중심가의 마드렌사원앞에서 디자이너 토랑트의 83년도 春夏하이패션의 일부인 실크스커트와 소매달린 재킷을 선보이고 있다。 【파리19日AP=聯合】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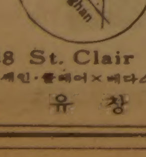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한국인이 경영하는미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중국 식당

"단체손님 환영"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656-0456
(세인·클레어×베다스트)
유 창 준 654-6609

알립니다

한인회 신임 회장단과 함께 봉사할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기에 교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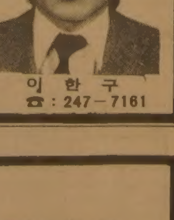
총무	: 김 진 현	사회봉사	: 함 효 상
섭외	김 원 도	기획조사	: 김 병 선
차장	: 김 인 병	부녀	: 오 정 숙
홍보	서 만 수	차장	: 이 칠 영
차장	: 김 현 규	교육	: 김 옥 자
문화	: 김 상 옥	차장	: 박 지 연
재무	: 우 기 주	체육	: 서 인 현

그 외에 부서는 차후에 알려 드립니다.

1983년 1월

토론토 한인회 회장 장 순 채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서 광 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 (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 소: 288 Hou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貿易장벽 못넘은 말과 약속의「消防외교」…同盟관계만 再確認

나까소네 訪美 3일

日問題해결의지 환영

실질進展없었지만 危機무마 기여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나까소네 일본수상은 그의성공답게 매우 활발에 넘치는 訪美일정을 끝냈다.

예정대로 레이건 대통령과 두차례나 회담을 가졌는가하면 슐츠와 와인버거등 주요각료를 차례로 만났고 상.하원의 의회지도자들과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

나까소네의 이번訪美는 미국정부나 의회,국민사이에좋은 인상을 심어준 면에서는 일본에 대한 불만을 진정시키는 일종의 消防외교란는 측면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수있다.

그런의미에서 본다면 그가 訪美전 일본의 방위비를 GNP 1%수준으로 올리고 對美무역에 관한 관세율과 절차등을 완화한것, 한국과의 관계개선, 일본의 군사기술의 對美공여등 사전조치와 그의 訪美중 각계와의 접촉때마다 서슴없이 강조한「동맹관계」와 대화를 통한 이견의 절충등을 통해 이런감정을 진정시키려는 첫단계노력은 성공을거둔 것으로 볼수있다.

첫단계란 그가 訪美전 수행한 일련의 조치가 미국정부는 물론 의회에서까지 커다란 지지를 받은 반면 그가 訪美후 각급의 접촉에서는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채로 해결의 방향과 의지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런단서가 붙여질수 있을것같다.

즉 이번訪美에서 다져진것은 양국우대의 재확인과함께 앞으로 美日간의 마찰요소를 해소하기위해 더많은 노력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것이며 미국측이 나까소네수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訪美를 크게 환영하면서 강조한것도 바로 일본측의 좀더 신속하고 더강력한 행동이었다.

美國의 視角

나까소네수상의 3일간의 訪美기간중 미국측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것이 무역문제였다. 그것은 미국에 급증하는실업등 국내적인 관심이 컸다는데서 더욱 관심을 모은 문제였다.

그러나 이문제에서 나까소네訪美이전에 취한 사전조치의 테두리를 넘은 진전은 하나도 없었다. 더구나 美日무역역조의 주종처럼되어있는 일본차에 관해서는 자유무역이라는 원칙때문에 거론되지 않은것으로 되어있으며 그간 일본내에서 시비를 일으켰던 미국산쇠고기및 오린지의 對日수출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무역부문에있어서의 미국의불만은 레이건대통령이 회담후 내놓은 성명에서 잘나타나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의 무역장벽철거에 대한 그야말로 만족할수있는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며 그이외의 어떤것도 미국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분야에서도 마찬가지. 나까소네수상이 말한것은 1980년 레이건-스즈끼공동코뮈니케를 성실히 준수하면서 일본본토의 방위, 이에따른 해상로,공공의 방위를 모두 이미 밝힌 방위계획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질것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요구가 일본이 말하는 자위를위한 현수준의방위노력은 미흡하며 방위비지출등의 증액이라면 이문제에서도 이번 訪美중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주목될만한것은 나까소네수상이 서슴지않고 미국과의동맹관계를 천명하고 여느분야에서도 두나라가 결속할것임을 다짐한것은 실현적성과로 볼수있는 진전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역대수상들이 이런 표현이 군사동맹으로도 간주될수 있는 국내적비판을 우려해 말하기를 꺼려해온것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나까소네수상의 한국방문에대해 레이건대통령은 회담중 적극적 환영의뜻을 표했고 국제정세 특히 소련과 중공에대해 레이건대통령과 나까소네수상은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함으로써 소련과 중공등에대한 미국의 입장과일본의 분명한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이같이 이번회담은 무역과 방위등 실질적인 것보다 동맹의 재확인,협력,국제사회에서의 역할등 말과 약속의 회담이었다는 인상을 짙게주고 있다. 그것이 일본의 오랜 지의였는지, 혹은 무역문제등으로 악화된 미국측감정의 진정, 미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보호주의 움직임의 방지에 뜻이 있는 것인지는 제처놓더라도 여러갈래로 보였던 일본의 對美자세를「동맹」이란는 한마디로 일축요연하게 정리해주었으며 저어도 일본이 앞으로 미국과의 여러가지 관계를 어떤방향으로 도모해나갈것인가를 제시해준 기회였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번 3일간의 나까소네訪美에 대해 어느신문칼럼니스트는『나까소네수상은 먼저 무역과 방위문제에 관해 어느정도의 양보를 했다. 그것은 워싱턴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치않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기를 피하는데는 충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東京근교 사이따마에서 해마다 열리는 自衛隊 閱兵式에서 일본기에 경례하는 자위대제병지휘관. 【타임誌】

◇미국의 對日농산물수출압력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본농민들.

兩國신뢰회복 큰意義

「共同운명체」發言에 野黨서 반발

【東京=宋孝彬특파원】나까소네(中曾根)수상의 訪美목적은 對美관계의 신뢰회복과 방위및무역면에서의 마찰을 해소하는데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외무성은,'레이건美대통령과 나까소네수상과의 두차례에 걸친회담에서 美日관계를 공동운명체로서의 동맹관계로 재확인한것은 나까소네수상의 1차적인 訪美목적이 달성된것으로 평가했다.

나까소네수상자신도 20일 訪美성과를 묻는 기자질문에『美대통령과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갖게했다는 것을 의의있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나까소네수상은 19일 레이건대통령과의 25분동안 단독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나의 정권이 언제 무너져도 관계치않는다. 다만 위기상태에 있는 美日관계를 하루 빨리 정상화한다면 그것으로 나의 일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레이건대통령도 그런 각오로 임해달라』고 답변했다.

美日우호강화를 일본외교의 주축으로 삼고있는 나까소네수상은 미국의 對日불신원인이 美日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지키지않는데 있으며 특히 레이건·스즈끼공동성명에서 약속한 1천해리 해상방위와 세계평화에 중요한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은 약속하고 이행하지않은데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평화헌법과 군사적인협력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세계평화에 중요한지역인 한국에대한 경제협력에 소극적인태도를 취함으로써 美日간의 불신은 더욱증가됐다.

日本의 視角

그러나 나까소네정권은 訪美에 앞서 한국을 공식방문하고 40억달러의 경협문제를 타결했으며 87개품목에 이르는 관세인하조치와 對美무기기술공여의 결단을내렸다.

나까소네수상이 과단성있게 정책수행을 단행함으로써 일본이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인상을 레이건대통령을 비롯한 미국민에게 심어준 셈이다.

두차례에 걸친 美日정상회담에서,특히 국제정세에 관해 소련의 안드로포프정권의 등장과 中·蘇화해에따른 세계정세를 분석하고 극동의안정을 위해 양국의 긴밀한협조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데의견의 일치를 본것은 의의있는 일이라고 일본외무성은 평가했다.

나까소네비수상은 全대통령과의 회담내용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을 포함한 東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한것은 美日안보조약과 韓美방위조약을 축으로한 3각협력의 기반을 닦은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美日양국은 소련의 극동군사력증강이 이지역의 불안요인이 되고있을뿐 아니라 歐洲에 배치된 소련의 중거리미사일 SS20의 일부를 극동에 이동시키려 하는것은 東아시아 지역의 긴장고조를 증가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美日간의 공동인식에 따라 레이건 대통령과 나까소네 수상은 東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美日양국이 공동운명체로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일본이 응분의 국제적책임을 다할것을 합의한것은 美日관계의 신뢰회복뿐 아니라 자유세계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설정했다는데 의의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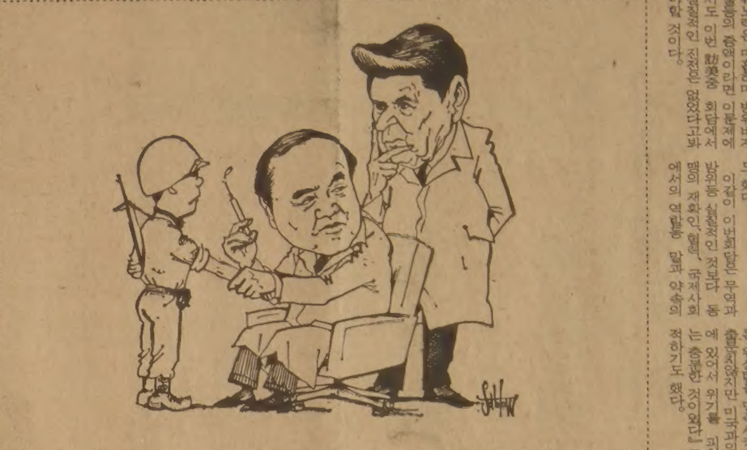
국제경제 정세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체제를 유지 강화하자는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는 쇠고기와 오린지의 수입 자유화에 대해서 나까소네 수상은 거부했다.

나까소네수상은 訪美에 앞선기자회견에서『레이건 美대통령에게 예스와 노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고『방위력증강은국제적인명분의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예스이고 쇠고기와 오린지수입 자유화에대해서는 노』라고 말했었다.

외무성도 나까소네수상이 역대 일본수상과는 달리할수있는것과 할수없는 것을분명히 말할수있는 수상으로서 미국에서 환영받고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레이건美대통령과 나까소네수상과의 정상회담은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레이건美대통령과 나까소네수상과의 美日정상회담에서 공동운명체로서의 美日동맹관계를 재확인한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미국의 세계전략에 휘말려 전쟁의 와중에 일본을 끌어넣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民社黨을 제외한 사회당공산당등 야당은 나까소네수상이 워싱턴·포스트지와의회견에서 일본열도를 不沈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방위론을 들고나온것은 전수방위를 기조로한 평화헌법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열리는 국회에서 정치문제화하겠다고 벼르고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방위력증강은 이정도면 되겠지요』 【일본요미우리신문】

南北 過當경쟁止揚

새해國政의 青寫眞

全대통령 施政연설의 背景

統一·外交·國防

全斗煥대통령은 1·18국정연설에서 통일에대한 집념과 함께 對外指向인 외교시책,有事時에 戰勝을 보장할수 있는 臨戰태세의 확립등 국방시책을 밝혔다。全대통령은 특히 통일문제에 대해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회담을거듭 촉구하면서 이 회담이 이뤄질 경우 다룰 4개항의 당면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우리의 南北대화제의에 北韓측의 계속적인否定的인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은 중단 할수없다는 全대통령의 역사의식과 신념을 피력한것으로 풀이된다.

全대통령은 최고책임자회담이 개최되면◆南北韓간의 긴장완화와 전쟁再發을 방지키 위한조치◆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北韓이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함께 협의하고◆국제무대에서 南北韓간의 過當경쟁에서 벗어지는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는 조치등을 강구하자고 구체적인 當面실천과제를 내놓았다.

當面실천과제중 특히 두드러지는것은 南北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문제라고 할수있다. 사실 지금까지 南北韓간의 지나친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은 서로를 불신케 하고 긴장을 더욱 조성함으로써 민족의 和合과 통일에 역행되는 상황을 초래해왔다.

따라서 이같은 同族간의 낯뜨거운 경쟁을 지양하자고제의한데대해 北韓이 또다시 이를 거부할경우 이는 北韓측이 겨레의식과 同族의식을 거부하는 행위로 밖에 볼수 없을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南北韓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조치의 갈구라는 과제 역시 주목 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相互不可侵」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간의 협의로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는조치가 마련된다면 分斷으로빚어진 누적된 상호不信이 해소돼 민족생활의 모든면에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될수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가까운 길일수있을것이다.

이같은 당면과제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北韓측이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보이고있는것은 그들이 아직도 赤化야욕을 버리지못하고있는 증거라고 할수있다.

이번 國政연설의 통일정책분야에서 또다른 특징을보면 통일문제를 협의하는 대화의 광장에서는 어느一方의 주장과 요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과 雙方이 제기하는 모든문제가 아무조건없이 협의돼야 한다는「包容性」원칙이 제시됐음을 들수있다.

雙方제기문제「包容性」원칙제시
開放외교·自主방위태세를 強調

외교문제에 관해 全대통령은「세계를 상대로 일한다」는 자세와 긍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외교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제5공화국출범후 계속 추진해온 對外指向的인 개방외교정책을 거듭 강조한것으로 풀이된다. 全대통령은 취임후 訪美와 아세안5개국순방, 아프리카 및 캐나다순방등 頂上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北傀를 완전히 압도하는 위치로 우리의 외교를 이끌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맞춘 全대통령의 對外지향적인 외교정책이 가져온 結實이라고도 볼수 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이래 頂上외교와 함께 太平洋정상회담,南南협력을 우리외교의 3大支柱로 삼고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국정연설에서도 이같은 외교방향이뚜렷이 명시돼있다.

이와함께 美·日등 핵심우방국가들과의 안보유대및善隣우호관계 유지를 거듭 강조한것은 이들국가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인데다가 東北亞지역에서 차지하고있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돼야 할것이다.

全대통령은 國防시책과 관련, 실질戰力의 강화를 통한 自主방위태세의 확립을 강조했다. 이는 全대통령이 취임후 줄곧 주창해온것이다.

이에따라 작년부터 강화된 야간훈련이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될것으로 보이며 軍상부구조의 정예화와 행정합리화를 통한 예산절약으로 일선전투력의 강화가 더욱 추진될것으로 보인다.

또 自主방위태세의 확립을 특히 강조한 점으로 미루어 우리의 地形地勢에 맞는 한국型장비의 개발이 더욱 촉진될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끝) 【河長春기자】

메아리

金昌悅 〈編輯委員〉

仰天

지난 연초, 미국 공군은 북부 콜로라도州어디에선가 발신되는 정체불명의구조 요청전파(SOS)를 찾아 긴급출동했다. 추적 끝에 그전파는 어떤 개인회사 소유 비행기에서 발신되고 있음이밝혀졌다. 긴급전파 자동발신기의 축전지를 잘못 끼운 것일뿐 사고가 났던것은아니었다. 그런데 그 SOS를 먼저 잡아 미국 공군에 통보한 것은 3만8천㎞ 상공의 소련 위성이었다 (AP=코리아타임스6日字3面).

이처럼 電子 偵察위성은 몇볼트짜리 축전지의 전파까지「도청」한다. 高價偵察위성은 2백㎞ 상공에서 15㎝ 크기 물체를 분간한다. 레이다를 쓰면, 그성능은 더욱 앞서진다. 구름이 끼어도 구실을 하니까.

이래 저래 20세기의 하늘은 붐비게마련이다. 작년초 현재까지 발사된 인공위성은 도합 2천7백34개. 일본도23개발사의 실적을 자랑한다. 소련과 미국다음의 세계3위. 프랑스의 17개보다 앞서있다.

「뉴톤의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언젠가 땅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당연한데, 하필이면 原子爐를 실은 위성이 떨어진다니一하는 것이 요즘의「宇宙公害」「宇宙恐怖」소동이다.

일의 경과는 이번 코스모스 1402나, 78년에 떨어진 코스모스 954가 꼭 같다. 미국이 폭로하듯 위성의 추락을 예고하면, 소련은 이를 부인했다가 마지 못해 시인하고, 原子爐의 방사능피해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발뺌한다.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전문가를 모아 무슨 대책본부인가를 설치하고 법석을 떨어야 한다. 그 기사를 보며 조금은 불안하다.

그러나 어정쩡한 구석이 없지도않다. 또 대체 코스모스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코스모스의 原子爐가 육지에 떨어질 공산은 30%라 한다. 지구 표면 육지와 바다의 비율대로다. 우리나라에 떨어질 공산은 5천분의1, 1만분의1, 또는 3만6천분의1이라고 한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한 것일까.

위성을 추적하자면 고성능 스카이.카메라와, 위성전파를 추적할 전파망원경, 그 궤적을 解析할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겐 그런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과의 호트라인을 개설하여…운운하는 발표가 있었지만, 미국은 위성추락을 발표한 것외에는, 우리나라에 달리 통보해온 것이 없다. 지난 11일이후에는 숫제 일체의 코스모스情報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처지는 그야말로 暗中摸索, 외신이나 보며 有備無患을 뇌는 것 뿐이다.

일본의 사정도 별로 나은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정기적인 통보를 받고 있었으나, 11일 이후 그통보가 없어져 半소경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아마추어·그룹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들은 지금까지 8차례 위성추락을 확인한 실적이 있다. 근래 일본發 외신의 코스모스情報는 이들의 관측성과다.

어제아침 외신에보면, 18~19일의 레이건-나까소네會談은 일본의 우주개발참여를 합의하고있다. 일본의 우주과학수준을 미국이 인정한 셈이지만, 그 못지않은 아마추어·그룹의 활동은 우주를 향한 일본사람들의 관심이 폭넓음을 말해 준다. 官民할것없이, 우리 처지와는 격차가 크다.

물론 정작 코스모스가 떨어질 때는 미국의 사전경보가 있을것이 틀림없다. 原子爐가 이땅에 떨어질 공산도 극히적다. 그러니 위성추적에 많은 돈을 들일 것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주를 향한 관심은 그런위험度에 달린것이 아니다. 이번소동이 단적으로 드러낸 宇宙軍備의 실태가 우리의 관심을 재촉한다. 엊그제 밝혀진 미국의「84~88회계연도의 防衛指針」이 外界로부터의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말하고 있는 대목 (한국일보 18日字2面)등이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실정을 너무 외면하고지낸다. 우주과학에 대한 무관심, 일종의 心理的文盲상태가 있는 것도 같다. 그 단적인 예가「UPI=聯合」인 앞서의 기사중 첫머리께,「外界로 부터의…」가「外界와의…」로 誤譯된채, 신문마다 실린 것이다. 미국이 對소戰 아닌 火星人과의 전쟁을 대비한다고 보도한 꼴이다.

우리도 이제 발밑만 굽어보지 말고, 하늘도 쳐다볼때가 되었다. 氣象관측의 첫째를 仰天望氣라 하지만,구름 저쪽까지「仰天」할 여유를 가질만도 하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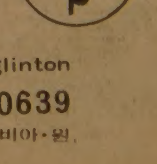
한 나라가 GNP만으로 先進國이 되는것은 아니다. 그만한 과학의 內實이 따라야 仰天하고 俯地하여 부끄러움 없는 先進國이 된다. 그에 걸맞은 관심과 투자가 있기를 기다린다.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실비아·윈.

머리·교복自律化…犯罪 증가추세에

少年犯 戒護업무 엉망

人力 모자라 "便法호송·감호"
逃走 난동 自害사건등 빈번

본격적인 교복, 두발자유화를 앞두고 비행청소년의 선도문제를 깊이 생각해야할 요즈음 소년범 계호(戒護)업무가 엉망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와 법원이 소년범감호및 호송책임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계호업무가 방치되거나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호송이나 판결대기중에 도주·자해행위·집단난동·직원폭행등의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법원에 의하면 법원소년부에 송치되는 소년범(만12세이상~20세미만)은 법원보호실에 잠시 머물렀다가 곧 소년감별소에 위탁수용돼 그때부터 법원에 출정해 심리와 조사를 받는다. 조사가 끝나면 법관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으로 넘어가거나 석방(가정위탁처분)되는데 감별소란 일반범의 경우 미결감에 해당하는곳.

그런데 소년범들이 감별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법원에 출정하거나 감별소로 돌아오는 과정의 호송업무 ▲법원보호실의 관리업무 ▲처분(판결)이 내려진 소년범의 호송업무등에 대해 아무런 법률규정이 없다.

일반범에 대한 호송이나 감호업무및 법원구치감 관리책임이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있다는 규정과는 대조적인 「관리부재」 현상이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하루평균 50여명씩 수용하는 보호실관리를 법원정리(廷吏) 3명과 잡급직원3명이 담당하고있다. 또 심판실이나 조사실까지 소년범을 호송하고 감호하는 업무도 일반직원과 정리들이 맡고있으며 감별소로 돌아갈때는 감별소 직원(輔導職)이 담당한다. 그러나 소년범 보호시설이없는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일반사무실이나 빈방에 임시로 보호하고 법원내에서는 물론감별소로 돌려보낼때도 법원직원이나 정리들이 호송책임을 진다. 호송차량조차없어 일반승용차로 호송하는 사례도 있다.

大邱지법소년부의경우 조사 심리가끝난 소년범을 감별소로 되돌려보낼때 인원이 4명이상일때만 감별소에서 차량과 직원을보내 호송해갈뿐 4명이하일때는 법원직원이 법원장 승용차로 호송을 하고 있다.

특히 법원내 보호실에서조사실이나 심판실까지의 호송과 감호업무는 모두 일반직원이나 정리들이 떠맡고있다.

법원관계자들은 「강간·특수강도등 관련자가 7, 8명이나 되는 소년범들까지 전문지식과 교육·훈련이 없는 일반직원들이 맡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있다.

실제로 몇해전 서울가정법원 2층조사실에서 조사를받던 소년범이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려 중상을입는 사례가 있었고 전국법원에서 해마다 소년범도주사건이 1~2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관계자는 털어놓고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해 최근 제정한 「소년심판규칙」에 조사또는 심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소년범의 감호의무와 법원내 소년범보호실관리의무가 법무부산하의 소년감별소에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조항의 시행시기는 법무부의 인원보충이 이루어질때까지 여유를 주기위해 오는85년1월1일로 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인력이 배치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다 이루어진다해도 그때까지는 계속 소년범에 대한 호송및 감호업무는 방치상태에 있을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崔奎植기자】

◇폭설로 뒤덮인 光州시가　20일새벽 전남도내에는 강추위와 함께 폭설이 내려 4개 국도에 교통이 두절됐다. 【20日光州電送=聯合】

湖南지방에 大雪
高敞26㎝

【光州】大寒을 하루 앞둔20일새벽 전남도내에는 영하6도의 강추위와함께 폭설이내려 光州─和順간등 4개국도의 교통이 두절됐다.

전날 하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포근한 날씨로 내리는대로 모두 녹았는데 이날밤부터는 기온이 영하로떨어지면서 빙판길을이루고 눈이 쌓이기 시작, 20일상오7시현재 ▲長城13㎝ ▲光山10·3㎝ ▲錦城 8·2㎝ ▲光州 7·5㎝ ▲和順5·5㎝ ▲靈岩 4·2㎝등 도내평균 3·9㎝의 적설량을 보였다.

【全州】20일 새벽 전북서해안일대에는 高敞지방의 26㎝를 최고로 평균 5·6㎝의눈이내려 20일상오9시현재 井邑내장에서 淳昌복흥간 도로를 비롯, 高敞邑─전남長城, 高敞흥덕─高敞심원, 任實강진─任實옥정, 任實강진─井邑산내간등 5개도로의 교통이 두절됐다. 【聯合】

浦項~鬱陵島간 사흘째 運航정지

【浦項】경북 울릉도·독도근해에 발효중인 파랑주의보로 浦項─울릉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 한일호와 청룡호가 18일부터 20일까지 연3일째 운항을못한채 각각 발이묶여 있다.

또 울릉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인가운데 20일상오4시부터 함박눈이내려 9시현재 21·5㎝의 적설량을 나타내고 있다. 【聯合】

面接탈락 肢體장애 金鳳蓮양

特採로 敎壇에 선다
희망따라 特殊학교 발령
"다른敎師보다 더 열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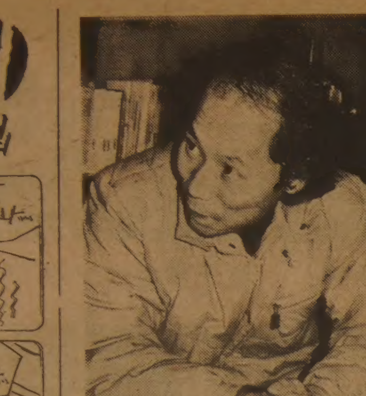
지체부자유자라는 이유로 중등교사 임용순위고사에서 탈락됐던 金鳳蓮양(26·사진·한국일보82년12월29일자보도)이 교단에 서게됐다.

부산시교위는 20일 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면접에서 탈락되었던 金양을 특채형식으로 구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체부자유자 특수학교인 공립 惠星학교의 가정담당 교사로 발령키로했다.

金양은 왼쪽다리를 약간 절기는 하지만 목발없이지리산, 설악산을 오르내릴정도로 정상인 못지 않은 운동능력을 가지고있고 2급교사, 1급영양사자격에 필기시험 성적도 3백16명중 19등급으로 우수한 편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면접에서 「판단력, 발표력부족」이라는 이유로 탈락됐었다.

金양은 그후 소아마비협회인 正立회관에 이같은사정을 호소, 正立회관 黃年代관장 鄭恩培이사등이 지난12일 부산시교위를 방문하고 金양의 장애정도가 교사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설득했고 시교위측이 이사실을 문교부에 통보하고 협의한 끝에 특채형식으로나마 金양을 구제키로 결정한것.

金양은 앞으로 교원인사교류때 惠星학교이외의 일반학교에서도 근무할 수있게 됐는데 「다른 교사들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任前淳기자】



◇범인 李東植

劇藥먹여 고통속 숨져가는女人
카메라에담은「稀代의 변태殺人」
前科4犯 평소通情…"관계 끊기위해"

서울南部경찰서는 20일 모사진작가협회회원인 李東植씨(42·절도전과4범·서울江東區可樂洞可樂아파트77棟406호)를 살인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12월14일 상오11시께 편소청을 통해온 可樂洞 D이발관 면도사 金敬姬씨(24·경기城南市 新興2洞282의145)에게 『누드 모델로 출세시켜 돈을벌게 해주겠다』면서 서울九老區始興3洞77앞 호암산 중턱으로 데리고 가극약을 넣은 마이신캡슐을 감기약이라고 속여먹게해 숨지게 한혐의다.

경찰은 金씨가 고통을 겪으며 숨져가는 과정을 李씨가 카메라로 찍은 사실을 밝혀냈는데 李씨는 ▲金씨가머리가 어지럽다면서 소리지르는 모습▲가슴을만지며 괴로와하는 표정 ▲숨진뒤의 전라등 숨져가는 과정을 21차례나 찍는 변태행위를 했다는것이다.

李씨는범행후 집으로 돌아와 직장인 可樂아파트보일러책임자로 평소처럼 근무했는데 金씨의신원을 밝혀낸 경찰이 추적끝에 검거됐다.

李씨는 지난17일 경찰에잡히자 범행을 부인했다가 경찰이 金씨가 죽어가는과정을 담은 필름을 찾아내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李씨는 경찰에서 『金씨가 자주 집으로 전화를걸어 만나자고해 金씨와의 관계를끊기위해 범행한것이지 사진을 찍으려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고향인 大邱에서 국민학교를 졸업, 15년동안 넝마주이생활을하면서 절도전과 4범을 기록한 李씨는 76년부터 1년동안 사진기술을배워 82년10월에는 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들어갔고 78년에는 지방사진작가협회주최 촬영대회에서 11번 입상했으며 은상(2등)을 수상한적도 있다는것.

李씨는82년11월27일 동네이발관에갔다가 면도사 金씨와 같은관계를 맺기시작했는데 慶州태생으로 大邱에서자라난 金씨는 두아들을 둔이혼녀다.

蘇衛星, 韓半島하루2회통과
오늘 새벽4시45분 下午7시8분

과학기술처 방사능 방재기술지원단 위성궤도추적반(반장 崔圭弘박사)은 소련핵추진위성 코스모스 1402호가 하루 2회씩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고 있으며 21일엔 새벽 4시45분과 하오7시8분 두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벽에는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한반도 서남상공을 통과하며 저녁엔 남서에서 북동방향으로 북한상공을 통과하게 된다.

國民校 신축싸고 收賄
서울市敎委 공무원 5명구속·수배 5명人事조치

서울지검수사과는 서울시교육위원회 시설과직원 鄭模씨(34·주사)와 睦翼均씨(22·서기)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現進주택상무 洪淳昊씨(33)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시설과 건축1계장 曺性浩씨(38·사무관)와 건축2계장 吳相曉씨(43·사무관) 직원 金相勳씨(34·주사)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시설과 시설계장 林璂雨씨(40·사무관)등 5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토록 서울시교위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鄭씨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각각 서울시교위에서 발주, 착공한 서울九老區禿山洞 新禿山국교와 서울江南區 開浦洞開浦국교신축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업체인 現進주택상무 洪씨로부터 공사 감독때 편의를 봐주는조건으로 3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14회에 걸쳐 월례비형식으로 2백18만원을 받은 혐의다.

睦씨는 洪씨로부터 같은명목으로 지난해 9월19일 4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17회에 걸쳐 모두 3백2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배된 曺씨와 吳씨, 金씨등도 역시 洪씨로부터 각각 1백10만원, 1백만원, 2백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시공업자 洪씨가 관련공무원에게 준 뇌물액수는 모두 1천2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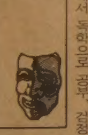
북어국에 食中毒
單協조합장 숨져

【木浦】19일밤9시께 전남務安郡海際面新井里 신광식당(주인 金澤順)에서 농협해제단위조합장 洪龍義씨(45)와 海際面보건소장 朴永順씨(33) 새마을금고 이사장 朴興淳씨(43)등 기관장 5명이 함께 북어국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조합장 洪씨는 1시간뒤 숨지고 朴씨등 4명은 중태다.

경찰은 이들이 북어술국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보고 식당주인 金씨를 입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있다. 【聯】

「슈사인 立志傳」

成均館大 합격한 徐正岩군
中高과정도 獨學…"두고 보십쇼"



서울江南고속버스터미널에서 6년째 구두를 닦고있는 徐正岩군(사진·20)이 금년도 成均館대학교 야간 무역학과에 합격했다. 20일 아침 학교에 가서 합격사실을안뒤 다시 일터로 돌아온 버스안에서 徐군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었다 웃었다했다고한다.

徐군은 고향인 전남 康津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집안형편으로 진학이 어려게되자 15세때 무작정 上京했고 터미널앞에 구두닦이로 자리를 잡은뒤 구두닦는 틈틈이 공부를 했다. 徐군은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을 모두 이 구두닦이박스안에서 독학으로 공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구두약통에도 온통 깨알같은 글씨로 영어단어를 적어놓았고 영어회화를 익히기 위해 헤드폰을 끼고 구두를 닦아왔다. 「구두나 닦지 무슨 노래를 듣느냐」고 어른들이 나무랄때마다 徐군은 속으로 웃었다. 「두고 보십쇼」

함께 상경했던 고향소년 2명은 구두닦는 일이 「부끄럽다」고 몇개월뒤 귀향해버렸지만 徐군은 공부하는 재미에 구두닦는 일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한다. 고향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한 이 터미널광장에 많이 있지만 徐군은 단한번도 고향가는 버스를 타보지 못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법이어서 구두를 닦게하던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徐군의 모습을 보고는 민망했는지 발을 뺀고 앉아있기를 거북해하기도 하였고 자기 책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물론 구두약이 바지자락에 조금 묻었다고해서 마구 욕을 하며 세탁비 변상을 요구하는 「신사」아저씨들도 없지 않았다.

같은자취방에서 기거하면서 같은박스에서 구두를닦고있는 黃夏性형(25)은 작년에 建國大法大에 합격해서 이제 2학년이된다.

구두의 광택은 잘 닦고 문질러서 가죽내부에 숨은 은은한 빛을 뽑아내야한다고 徐군은말했다. 그는 남의 구두를 빛내주는 6년의 세월동안 자신의심성을 또한 갈고 닦아온 것이다.

터미널광장의 大寒바람은 차고매섭지만 구두닦이의 알루미늄박스안에서 석유곤로를 끼고 웅크리고 앉아 구두약 묻은 언 손을 녹이고있는 한 청년의 기개는 「對日무역 역조를 기필코 시정하는 무역인이되겠다」고 호언할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韓基奉기자】

結核藥 20여알 먹고
두살꼬마 참변

17일 상오8시30분께 서울江東區馬川1洞326의3 鄭相禮씨(26·여·상업)집에서 鄭씨의2남 孫홍준군(2)이 결핵치료제 아이나 20여정을 먹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는것을 어머니 鄭씨가 발견병원에 옮겼으나 18일상오3시20분께 숨졌다.

鄭씨에의하면 이날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부엌에서 나와보니 방바닥에 약병뚜껑이 열려있고 알약이 흩어져있었다는것.

孫군은 우측겨드랑이의결핵성혹을 지난해10월수술받은뒤 아이나를 하루 한알씩 복용해왔는데 어머니 鄭씨가 이날 아침8시께 약을먹인뒤 밥바닥에 놔두고간것을 병을열고 집어먹다가 사고가 난것이다.

예식장 도둑극성
釜山 東部署관내

【釜山】최근 부산시내 일부 예식장에는 하객들의 호주머니와 축의금을노리는 금품도난사고가 자주일어나고있다.

예식장이 붐비는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한 이같은 도난사고는 축의금접수때 주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1월들어동부경찰서관내 4개예식장에서만11건이일어났다.

지난 15일하오 東區凡一2洞 동화·세종예식장에서 김모군(13)등 국민학교 6년생 4명이 하객 김모씨등 5명이 갖고있던 축의금 6만8천원을 훔치다 경찰에 붙들렸다. 【聯】

새벽다방에 火災
2명 窒息死

【釜山】20일새벽 6시40분께 釜山鎭區釜田洞347의12유성다방에서 원인을 알수없는 불이나 35평의 다방내부를불태우고 다방에있던 주인 이명화씨(40·여·東萊區社稷洞 주공아파트18동501호)와 손님 변광근씨(50·東萊區巨堤1洞331의13)등 2명이 질식해 숨졌다. 【聯】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기계로 뽑는 진짜 냉면은 역시 한국관!!
5주년 개업기념 봉사
기간 : 11월29일부터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탕 $3.25
냉면 $3.25
비빔밥 $4.00
육계장 $4.00
영업시간 : 오전11시─새벽1시까지

*돐잔치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
등 각종 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육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531-0277

8強에 올랐다

농구종합선수권 여자부

太平洋—外換銀	
東邦生命—코오롱	
國民銀—商業銀	
韓國化—保證基金	

제37회 전국남녀 종합농구선수권대회는 20일 대회6일째를맞아 여자부예선리그를 완료, 國民銀行 코오롱(D조) 東邦生命 商業銀行(C조) 太平洋化學 保證基金(B조) 韓國化粧品 外換銀行(A조)이 각각 8강이 겨루는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20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된 여자부 D조경기에서 國民銀行은 孔賢子 姜貞杼두가드의 중거리슛으로 코오롱을 62-51로 제압, 2승으로 D조수위를 차지했다.

C조서 東邦生命은 金和順이 27득점을 올리는 맹활약으로 商業銀行에 61-55로승리, 2승을 기록하고 C조수위로 결선에 올랐다.

한편 남자부리그에서 現代는 韓國銀行을 83-71로 꺾고 4연승, 대학 최강 延世大와 대회 패권을 다투게 됐다.

現代와 延世大의 대전서 형 趙明洙가 現代센터로, 동생 趙明官이 延世大 센터로 등장, 형제가 한판승부를 벌이게됐다.

企業銀行은 産業銀行을 98-85로 물리쳐 2승2패를 마크했다.

이날 國民銀과 코오롱의 대전은 國民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지난해 추계연맹전 결승서 國民銀은 8초를 남기고 볼을 인터셉트당해 코오롱에 1점차로 분패했었다.

國民銀 승리의 기록제는 孔賢子 姜貞杼 두가드의 폭발적인 슛. 洪惠蘭 洪英順 朴鍾淑등 여자 대표팀 3명이 은퇴, 대폭 팀전력이 약화된 현 상황에서 孔賢子 姜貞杼의 활약은 대표후보로 농구인의 이목을 끌었다. 두선수는 나란히 20점씩을 올렸다.

코오롱은 중거리슛도 부진했지만 센터金福順이 國民銀의 강한 타이트맨투맨에 막혀 추격의 실마리를 찾지못했으며 외곽슛을 허용, 전반을 32-20으로 뒤졌다.

◇질풍처럼 敵陣에 東邦生命—商業銀行의 대결。C조1·2위 결정전에서 東邦의 金和順이 질풍처럼 드리블, 골밑을 파고들자 商銀선수들이 뒤쫓고있다. 東邦이 61—55로 이겨 C조1위가 됐다.

◇제6일전적

▲여자C조

동방생명 61 (32-26, 29-29) 55 상업은행

②동순위=①동방생명2승 ②상업은행1승1패 ③조흥은행2패

▲동D조

국민은행 62 (30-31, 32-20) 51 코오롱

②동순위=①국민은행2승 ②코오롱1승1패 ③선경2패

▲남자부리그

기업은행 98 (50-44, 48-41) 85 산업은행 (2승2패)(4패)

현대 83 (44-29, 39-42) 71 한국은행 (4승)(2승2패)

韓銀꺾은 現代、延大와 쟁패

남자

卓球대표 2元化

주니어·시니어 1·2군 남여10명씩 뽑아

대한탁구협회(崔元碩회장)은 20일 올해부터 국가대표팀을 시니어및 주니어부로 2원화하고 전임코치제 채택·국교생들의 특수라버 사용금지등 83년 탁구협회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통해 밝힌 운영방안에 의하면 시니어의 경우 내년 파키스탄에서 열릴 제7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와 85년 제38회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 오는 4월 열릴 제37회 세계선수권대회(日本 東京)참가후 기존대표단을 해체하고 선발전에 의해 재구성키로했다.

주니어상비군은 올해말 바레인에서 열리는 제1회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와 86년 아시안게임, 87년세계선수권대회,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2월중에 선발대회를 개최, 1·2군 각각 남녀 10명씩을 뽑기로 했다.

특히 정기평가전을 통해 2군선수를 1군으로 승격시킬수있도록하며 2군역시 문호를 개방, 우수선수를 상비군에 편입토록 했다. 주니어 1군은 3월1일부터 훈련원에서, 2군은 소속팀에서 각각 연습하여 5월 덴마크의 스칸디나비안오픈대회에 참가하고 日本 또는 臺灣에서 전지훈련도 가질 예정이다.

전임코치제로 운용될 주니어부는 감독1명, 남자코치및 여자코치 각각 1명으로 구성되며 감독은 대기업체부장급, 코치는 차장또는 과장급에 준한 급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崔회장은 오는4월 日本도오쿄에서 열리는 제37회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대표선수는 지난15일에 폐막된 종합선수권대회서 남녀8강에 진출한 선수외에 과거전적및 국제대회적응력등을감안, 추천된 7명과 오는25·26일의 2차선발전 전적을토대로 최종5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학교 유망선수들이 중도에서 좌절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라켓에 이면고무 혹은 돌출고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연질고무와 무회전고무등 특수라버 사용을 금지키로했다.

崔회장은 국교생들에 대한 이같은 규제는 오는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거쳐 소년체전후부터 적용키로 한다고 밝혔다.

국제舞臺서 또 나래를…

탁구 申得花

새 여자탁구 챔피언 申得花에겐 83년이 뜻깊다. 고사리 손에 탁구 라켓을 잡은지 만10년. 3남2녀의 막내딸로 태어난지 만20년. 申得花는 어른이 된 첫해의 기념선물로 개인단식 종합선수권의 영광을 안았다.

한 분야의 제1인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申得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78년 종합선수권대회서는 결승문턱에서 탈락, 3위에 그쳤다. 79년에는 결승까지 올랐으나 노련한 국가대표수비선수 朴紅子에게 눌려 2위에 그쳤다. 82년제2회 서울오픈대회서도 결승에 올랐다가 신진 梁英子에게 우승의 영광을 빼앗겼다.

158㎝、48㎏의 작은 체격으로 인한 파워부족, 상대의 허를 찌르기엔 미흡한 스피드, 완전치 못한 리시브… 申得花 역시 먼저 자신의 이러한 핸디캡과 싸워이겨야했다. 챔피언이 된 申得花가 이약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해낸것은 아니다. 그는 볼을 재치있게 잡아하는 볼컨트롤 찬스를 놓치지않는 정확한 스매싱으로 자신의 약점들을 커버할수 있었다.

申得花는 제1구로 포인트를 잡아 낼만큼 좋은 서브를 갖지 못했다. 첫 실격인 공격은 제3구에서 시작된다. 제3구의 날카로운 포핸드·드라이브가 득점으로 연결되지못하면 제5구의 매서운 스매싱이 상대코트에 작렬한다.

체력열세로 지구전에 다소부담을 느끼지만 申得花의 공격페이스나 정확성은 좋처럼 상대방에 반격기회를 허용치 않는다. 申得花는 그래서 수비선수에게 더욱 강하다.

리시브·스피드 갈고 닦아서 "10년만의 햇빛" 활활 불타게

『국가대표선수가 되는게 꿈입니다』

국가대표주전 梁英子(이일여고)등을 이기고 종합선수권을 차지했지만 국가대표선수가 더욱 힘들고 부러운자리다. 탁구전문가들은 申得花의 전형자체가 구라파나 동양권선수들을 상대하기에 불리한 편이며 그가 지닌 여러가지 핸디캡을 국제전에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오는 25·26일에는 국가 대표선수 최종평가전이 열린다. 종합선수권 8강과 협회가 추천한 선수 4~5명이 풀리그를 벌인다. 申得花가 자신에 대한 비평을 제치고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4월 東京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는 길은 평가전에서 다시 한번 기량을 발휘, 2위이내에 드는것뿐이다. 성적순으로 2명만이 대표로 선발되고 3명이 전형을 창작, 협회추천으로 뽑기때문이다.

82년 서울여상을 졸업하고 釜山코카콜라에 입단한 申得花는 81년 코카콜라팀과함께 처음 해외원정길에 올라 스위스·오픈단체전 3위를 기록했다. 82년에는 코카콜라의 일원으로 全美오픈에 출전, 단체전우승, 선배 鄭庚子와 함께 복식우승을 거두며 국제경기경험을 익혔다.

82년에 실시된 국가상비군평가전서는 10승6패로 6위를 마크, 국가상비군으로 처음대표훈련에 참여했다.

한 83년 세계2위고수를 목표로 여자탁구 세계선수권출전 한국대표팀 명단에 과연申得花의 이름이 오를수 있을것인지. 申得花는 지금 종합선수권대회때보다 더한 조바심으로 국가대표선발전을 기다리고있다. 【方錫皓기자】

◇申得花·신상명세

- 생년월일: 1963년 9월 6일
- 본적: 釜山市 中區 凡一洞1497
- 키: 158㎝
- 체중: 48㎏
- 가족관계: 田必順씨 3남2녀중 차녀
- 출신교: 凡一국교, 啓星국교, 啓星女中, 文英女中, 서울女商

LA五輪 선수宿食費 논란 "하루에45달러 너무 비싸다"

【로스앤젤레스=李台永특파원】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의 선수숙식비를 둘러싸고 국가올림픽위원회(ANOC)와 LA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LAOOC)간에 논란을 빚고있다.

18일 열린 ANOC비공개회의에서는 1백35개 참가국대표중 대부분이 LA대회조직위가 제시한 선수1인당하루 45달러의 숙식비가 80년모스크바올림픽의 18달러에비해 터무니없이 높은것이라고지적, 숙식비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참가자들은 아프리카국 대표들이 25달러이상은 지불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ANOC는 20일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연석회의에서 선수숙식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사격연맹 朴鍾圭회장 유임

대한사격연맹은 20일 泰陵사격장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朴鍾圭현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83년도예산 4억1천5백84만원을 통과시켰다.

사격연맹은 朴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특별지원을 받아 泰陵사격장내 상비군합숙소를 건립, 금년내 2진상비군 60명을 선발, 훈련시키는 계획과 외국인코치 3명을초빙하는안도 확정했다.

한편 국제대회입상선수 연구비지급계획에 따라 尹德昊(일시불 6백만원·월50만원)를 비롯, 朴鍾吉(5백만원·월50만원)을 비롯, 뉴델리아시안게임메달리스트 12명에대한 연구비도 이날 지급했다.

陸上연맹 분규 매듭 張회장 辭意를 철회

지난14일 대의원총회서 사의를 밝혔던 張翼龍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이 20일 사의를 철회,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대의원총회서 선출된 임원들은 모두 사퇴했다.

張회장은 새로운집행부 구성을 위해, 내주중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 대의원들과 협의하여 신집행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張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전제하고 『이번사태를 계기로 육상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金潗대한체육회부회장이 대의원총회서 반기를 들었던 육상인들과 만나 23명 전임원(회장제외)의 자진사퇴에 합의함으로써 타결을 보게되었다.

張吉山 <1645>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05)

『무담 세 짝에 피륙이 두 짐이다』

흥천수는 장쇠에게 쾌활하게 일렀다. 장쇠도 활기있게 말을 끌고 나갔고, 천수는 마루 끝에 나와 내다보는 이경순에게 인사하였다.

『평안하슈, 도장 어른』

『어서 오게. 요즈음 평안도에서는 왜 뜸해가 잦은가?』

『이제부터 바람 불 철이라 좀 뜸한 편입지요』

『자네가 흥흥거리는 걸 보니, 이번엔 담화(唐貨)인가?』

『예, 의주 부근에서 짐을 얻었답니다』

『얼른 옷 갈아입구 밥 먹어야지』

『밥은 고사하고 으실으실하니 우선 장국에 한 잔 걸쳐야겠수』

『헌데 송도 식구들은 아직 안왔구먼』

『물때 맞추는 놈들이 원래 제날짜에 대는 법이지요』

흥천수가 사랑에 오르고 묘옥은 임진강 쏘가리로 탕을 끓이고 술도 걸러서 상을 들여왔는데, 장쇠와 뱃사람 몫치가 말에 짐을 싣고 안마당으로 들어왔다. 몫치가 큰절하였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우두령도 안녕하신가?』

『예, 모두들 무고합니다. 이번에는 비단을 앞주서 쓰라고 보내왔읍니다』

『우두령이 먼데서 앞주를 잊지 않는구먼』

모두 방에 들어와 상머리에 둘러앉는데 흥천수가 수저를 들며 불평하였다.

『이전뒤 잿가에 붙어살자니 어렵거나 비린 것만 먹는군』

묘옥은 마루아래서 대꾸하였다.

『솔부리서 우리 큰 삼촌 돌아오면 천마산 송이며 산채를 맛나게 무쳐드리게요』

흥천수가 물었다.

『전생이가 언제 당도합니까?』

『내, 초이틀이니까 내일이로군』

경순의 대답에 천수가 술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하였다.

『에라, 요즈음은 개정무한 상한데 송도에 종류놈이나 나갈까』

『안되우, 나는 바람만 좋으면 낼 새벽에라두 배를 띄울 작정이우. 곧 큰바람 불면 평안도 가기가 당나라 가기보다두 어렵수』

물치가 고지식하게 버티었고 흥천수는 가만히 끄득였다.

『허 이 사람아,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 내일 강화루 돌아가기두 쉽지 않겠어. 그리고 자네 데리고온 아이들도 강화에서 며칠 쉬어야지』

물치는 콧방귀를 뀌었다.

『흥, 강화야 뭐 볼게 있나. 어계방서 투전이 고작이겠지. 우리 식구들은 대처 맛을 봐도 아주 짭짤하게 본 사람들이우. 평안도서 의주, 평양이면 한양성내 못지않은 대처라오』

우대용의 수적 일당들은 일찌기 초도를 떠나 선착지를 대동강 어귀의 가도(椵島)로 옮겼고, 마지산(馬池山) 부근에 어촌 비슷이 마을을 이루었던 터였다. 그들은 해서에서 활동하다가 수군과 부딪치면 얼른 관서 경계로 넘어갔고, 위로는 의주로하여 압록강 기슭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대동강을 타고 거슬러 오르면 평양이오, 급수문에서 남으로 꺾어지면 월당강에 닿으니 동선령과 자비령의 발치에 이르는 셈이었다. 그들은 평양의 여각에도 정탐꾼을 두었고, 강화에는 흥천수의 여각이있어 임진 수로와 경강 수로를 연결하고 있었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ONTARIO 83 JUN

여러분의 새 라이센스 프레이트 스티커를 속히 얻도록 하십시요

새 라이센스 스티커를 바꿀 때가 됐읍니다. 새로운 씨스템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여느때 보다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신청서, 보험증명서, 오너쉽, 그리고 요구하는 등록비 입니다. 등록비는 여러분이 출생한 달에 기준해서 매월 4불씩 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십시요. 여러분의 가까운 지역에 있는 라이센스 발급사무소에서 재발급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받은 스티커가 여러분의 출생한 달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지를 확인하십시요. 여러분은 2월28일까지 새로운 유효한 스티커를 구입 할 책임이 있읍니다.

스티커는 승용차인 경우 뒷 프레이트 오른쪽 위편 코너에 부착하고, 상업용 차는 앞쪽 프레이트 오른쪽 위 코너에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팔때는 프레이트를 떼어서 새차에 부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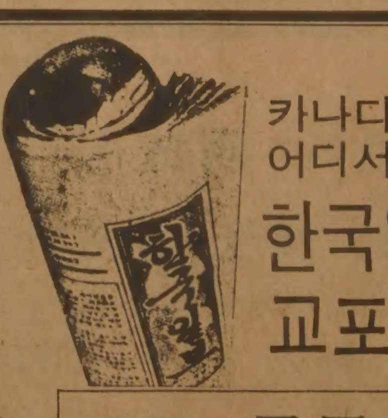
Ontario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Hon. James Snow, Minister Harold Gilbert, Deputy Minister

83년도 승용차 등록비

출생한 달: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등록비: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68
커버월수	6 MTHS	7 MTHS	8 MTHS	9 MTHS	10 MTHS	11 MTHS	12 MTHS	13 MTHS	14 MTHS	15 MTHS	16 MTHS	17 MTHS
유효기간	Jun 83	Jul 83	Aug 83	Sep 83	Oct 83	Nov 83	Dec 83	Jan 84	Feb 84	Mar 84	Apr 84	May 84

*Northern residents pay half of these fees.

ANNUAL FEE $48.00



카나다·미국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 곁에 있읍니다.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 중국산·한약·직수입
• 인삼·녹용 :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쿨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 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 Heating, Cooling & Electrical
•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921—7486(R)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컵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 3732 이 진일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석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신 용 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 1978(B), 248 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광고문의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지)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 2433 Finch W. #516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스토아헬퍼 구함
경험자 우대,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834 (오전 11시반 이후)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토·일요일은 자유, 월: $400.–
전화 : 499–5996 (저녁 6시이후) Mrs. 김

Tavern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젊은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491–9058

급구: ◉도넛츠공장 맡아서 운영하실분
(판로가 있음)
◉도넛츠 숍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Weston 지역과 Finch 지역)
◉도넛츠 숍 메니저 구함.
전화 : 665–0790(낮) 731–1641(저녁) Mr. 최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주실분
(Markham & Sheppard)
전화 : 284–3031 Mrs. 성

Kitchen Helper 구함.
5304 Yonge St.(영 남쪽, Finch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오후4시 이후), 826–7676(오후6시 이후)

한국요리사,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내방 요망합니다. 538 St.Clair Ave. W.
전화 : 654–6609 Mr. 유

Restaurant Kogil Kwan
한식요리사 1명, 일식요리사 1명, 중식요리사 1명. 10년이상 경력및 자격증 요함. 전화 : 532–7421 Mr. or Mrs. 장

영어, 수학을 가르쳐 주실분.
스카브로 지역.
전화 : (B)921–4466, (R)291–0117 Mr. 신

시외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Barrie 근처
전화 : 1–(705)–458–4326

5 일에 $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Van트럭 82년도 GMC 회색
3,000Km–실내장식 완비
전화: 749–9687 Mr. 조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산지 14개월)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5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주매상: 약 1만불의 도넛숍.
권리금: 33만불, 리스: 26년
◉월매상: 약 1만6천불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권리금: 3만9천, Short Hour.
렌트: $450, 4년+5년, 이층아파트 입주가능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636–1697

매매 (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 242–2630 Mr. Park(밤 10시30분 이후)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아스킹: 2만+스탁, 렌트: 월 $625(가게와 2층살림집)
1054 Gerrard St. E. 전화 : 469–3708

당구장 매매함.
비데오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 531–9216 (오후5시–밤12시) GEORGE

아이스크림 캐비넷 파실분 연락 바랍니다.
8Ft 나 6Ft. 쓰던것.
전화: 920–0539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해밀턴에 성업중인 가게 급매.
전화 : 1–389–9755 Jimmy (오후2시에서 밤12시)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여자 룸메이트 구함. 1 Bed Rm. 아파트
Finch & Bathurst
전화 : 630–7594(저녁 6시이후)

가게 렌트 (1700 Sq.feet)–런던지역(Dochester)
Walk–in 쿨러가 있으며 버라이어티나 take out food으로 적당.
전화 : 624–5817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헌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본욱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